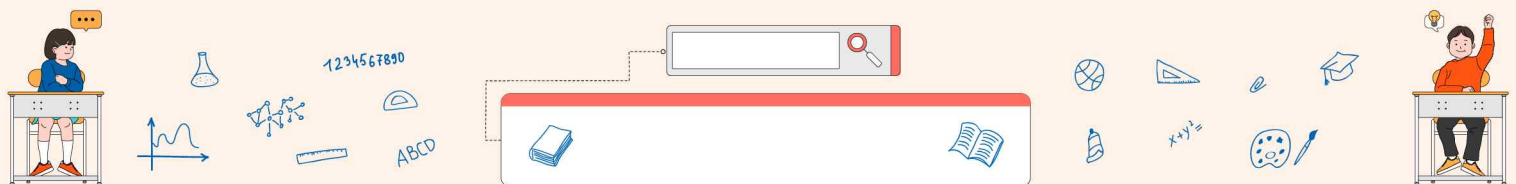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6
4	讲义	55
5	퀴즈	75
6	토론	81
7	자료	83



학습안내

01

과목소개

<한국경제와 학교 교육>은 한국의 학교 교육의 형성, 확대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이 과목은 수강생들에게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인적자본의 축적을 이끌어 낸 학교 교육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현재 한국 교육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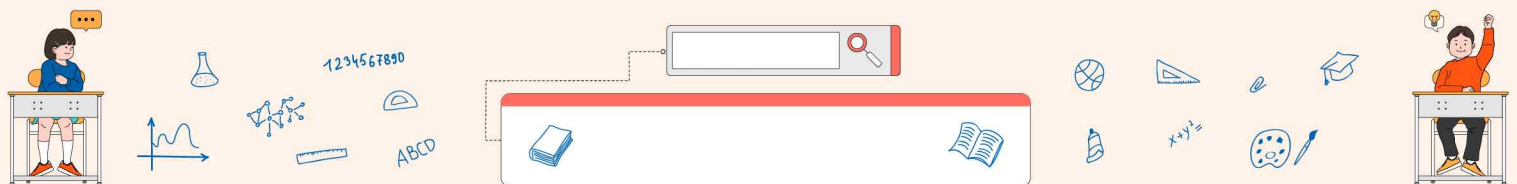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학습목표

- (1) 한국의 정규 초등, 중등, 고등교육 제도와 비정규 학교 교육의 형성, 확대, 발전과정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의 기틀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이해한다.
- (2) 교사, 재정, 여성의 측면에서 한국 학교 교육이 지닌 역사적 경험과 특수성을 살펴보고, 한국 학교 교육의 발전 과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 (3) 사교육, 평준화,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한국 학교 교육의 직면한 과제에 대해 탐구한다.

0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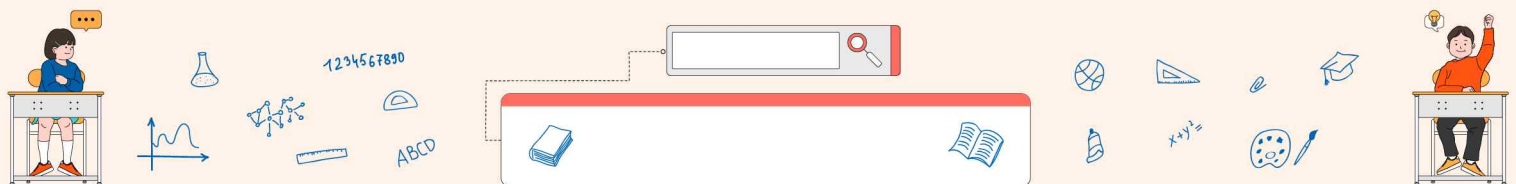
흔히 한국은 부족한 자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고 이야기한다. 가난한 식민지 국가였던 한국이 독립 후 전쟁을 겪으며 황폐화되었지만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데에는 우수한 인적자본의 역할이 상당했다. 이 강의에서는 우수한 인적자본의 축적을 가져온 한국 학교 교육의 경험을 주제별로 학습한다. 이 강의가 수강생들이 한국 학교 교육 성공 사례의 배경, 원인, 결과는 물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명암과 현재 남겨진 과제에 대해 더욱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04

주차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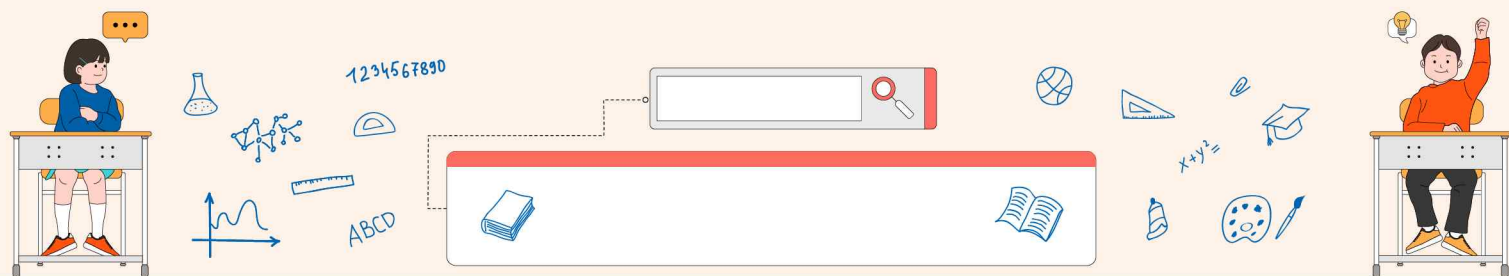
1주차	한국의 학교 교육
2주차	한국 학교교육의 형성
3주차	유아 및 초등교육
4주차	중등교육
5주차	고등교육
6주차	교원
7주차	교육재정
8주차	여성
9주차	사교육
10주차	학교 평준화
11주차	시험성적자료로 살펴본 한국교육의 현황과 과제
12주차	학교 밖 학교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5

주차

고등교육

5-1

한국 고등교육의 형성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와 한국 교육> 강의를 맡은 고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최근 고등교육 진학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어떠한 배경에서 현재와 같이 고등교육이 팽창했고, 한국 경제의 발전과 고등교육의 확대는 어떻게 서로 관련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고등교육의 출발점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조선 시대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은 성균관이었습니다. 성균관은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였고, 관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주로 유학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성균관의 학비와 기숙사비는 정부에서 지원했습니다. 성균관의 학생들, 즉 유생들은 과거 시험, 즉 대과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성균관은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교육기관으로 재편되었다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직후인 1911년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후 1930년에 다시 일부 교육기능이 살아나고, 해방 이후에는 현재의 성균관대학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민지기의 고등교육은 경성제국대학과 여러 전문학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전문학교의 전신은 구한말에 설립된 관립 전문학교들입니다.

1899년 설립된 의학교, 1895년 설립된 법관 양성소, 1899년 설립된 상공학교 등이 이후 명맥을 잇다가 1915년 공포된 전문학교 규칙에 따라 1916년부터 전문학교로 개편됩니다. 한편 1924년에는 일본의 여섯 번째 제국대학인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예과가 먼저 설치되었고, 1926년에는 학부가 설치되었습니다. 경성제국대학은 식민지기 동안 한국의 유일한 대학으로 운영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국립 서울대학교로 재편됩니다.



식민지기의 고등교육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1943년까지 대학은 경성제국대학 1개였고, 전문학교는 20개가 운영되었습니다.

조선인 학생은 전문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의 57%인 4,054명, 경성제국대학의 경우 예과는 29%인 200명, 학부는 43%인 335명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남학생이었으나, 이화여자전문학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숙명여자전문학교 등 여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도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기에 한국의 대학교육은 새롭게 개편됩니다. 1946년에는 경성제국대학과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치과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의 9개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국립 서울대학교를 설치했습니다.

경성치과전문학교는 사립학교였고, 나머지 8개 전문학교는 공립학교였습니다. 이외의 전문학교들은 4년제 대학교인 일반 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등이 현재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입니다. 또한 식민지기의 중앙보육학교는 현재의 중앙대학교, 동아공과학원은 현재의 한양대학교가 되었습니다.

한편 토지개혁을 앞두고 토지를 잃을까 걱정한 대지주들이 직접 설립하거나 토지를 기부하여 여러 사립대학들이 추가로 설립되었습니다. 1945년 당시 19개 대학에 7,819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이었는데, 건국 시점인 1948년이 되면서 31개 대학 24,000여 명의 학생으로 규모가 늘어납니다.

한편 일반대학의 전문부로 이어지던 전문교육은 1950년 2~4년제 초급대학이 신설되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급대학은 현재의 전문대학으로 이어집니다.

교육법 제정 후 1951년 6-3-3-4 학제가 정비되면서 고등교육 체제도 새롭게 정비됩니다. 고등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진학하게 됩니다. 크게 대학, 사범대학, 초급대학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대학은 4년제이고, 이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의 경우에는 6년제 과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대학도 있었는데 2년제 또는 4년제였습니다. 사범대학은 나중에 일반 대학으로 편입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급대학은 2년제 단기 고등교육기관으로 기술, 실무 등 전문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중등교육에 대해 설명드릴 때 언급한 것처럼 당시 초등교원의 양성은 사범학교에서 담당하였는데, 사범학교는 이때까지만 해도 중등교육 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사범학교는 1962년부터 2년제 고등교육기관인 국립교육대학으로 승격됩니다. 그리고 1981년부터 4년제 교육대학으로 순차적으로 개편됩니다.

1950년대에도 한국의 대학교육은 팽창합니다. 한국전쟁 시기부터 종전 이후까지 전국에 주요 국립대학교들이 설립되었습니다.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사립대학도 다수 설립되었는데, 1952년부터 1954년 사이에 16개의 사립대학이 새로 설립되거나 승격 인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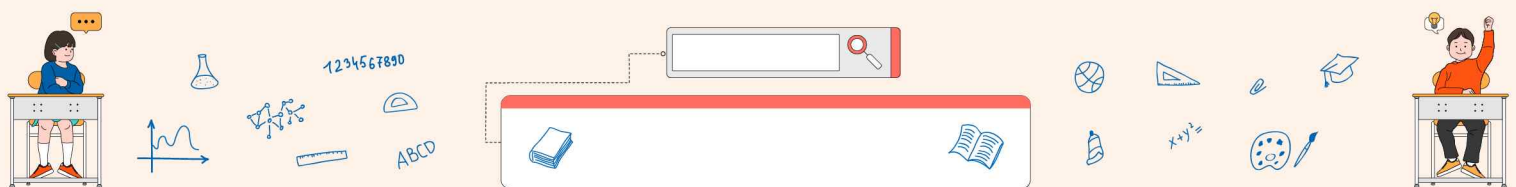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대학교육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1955년에는 대학설비기준령이 제정되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대학정비정책이 실시됩니다.

대학생 정원을 정하고, 영세대학을 구조조정하여 4년제 대학은 71개교 679개 학과 91,920명의 정원에서 50개교 532개 학과 66,410명 정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실업계인 초급대학은 늘어났고, 사범학교도 교육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대학교육 제도의 정비는 지속됩니다. 주된 내용은 대학교육의 팽창을 주도한 사립대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립대학들은 재정이 부실한 경우가 많았고, 학생 등록금에 대한 의존이 커서 되도록 학생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학생정원령과 학위등록제가 시행되었지만, 일부 사립대학들은 청강생 제도를 활용하여 규제를 피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대학입학예비고사를 실시하여 입학정원을 시험 성적으로 통제하는 제도가 1969년부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1970년대에 정부는 실험대학, 대학 특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일반 4년제 대학교의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1972년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개교했습니다. 1979년부터는 기존의 초급대학과 전문학교가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대학 입시경쟁도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대학교육 정책은 대학교육을 확대하고 입시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첫 시도는 1980년의 7·30 교육개혁이었습니다. 대학입시 경쟁이 과열되고 과외 등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됩니다. 그래서 과외와 학원교습을 금지시키면서 동시에 고등교육 제도개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대학 입시와 관련하여 대학별 자체 선발시험, 즉 본고사가 금지됩니다. 대신 고등학교 성적인 내신이 대학 입학전형에 반영되는 비율을 늘립니다. 별도의 시험준비 없이 학교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예비고사도 궁극적으로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1982년부터 대학입학 학력고사로 이름이 바뀌어 이어집니다.

예비고사는 원래 본고사 이전에 대학 총 정원의 1.3배를 선발하는 제도이기도 했는데, 더이상 본고사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이름에서 '예비'라는 명칭도 빠지고 총 정원의 1.3배를 먼저 걸러내는 제도도 폐지됩니다.

또한 졸업정원제도가 도입됩니다. 졸업 정원의 130%를 선발하여 교육과정에서 일부를 탈락시키고 정원만큼만 졸업을 시키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컸고, 실제 운영상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학생 수가 갑자기 30% 증가하면서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정원제는 1985년부터 유명무실해집니다.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강좌가 개설되던 형태를 전일제로 통합하는 전일수업제도 실시합니다. 야간 과정은 이제 신입생 선발시부터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외에 대학 입학정원도 확대합니다. 방송통신대학 교육도 강화하고, 교육대학의 4년제 승격도 이루어집니다.

1995년에는 새롭게 5·31 교육개혁이 실시됩니다. 우선 열린 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발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점은행제가 도입되고, 원격교육 지원체제가 구축되고, 편입학 기회도 확대됩니다. 대학교육에서는 다양화와 특성화, 국제화가 강조됩니다. 대학설립, 정원, 학사가 자율화되고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가 강화됩니다.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이어 전문대학원도 설치됩니다. 특히 대학설립을 자율화하는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제시됩니다. 학교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다양화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이후 사립대학 설립이 크게 늘어납니다.

대학입학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집니다. 상급학교 신입생 선발에 활용하기 위해 초, 중, 고에서는 인적, 학적, 출결, 자격증 및 인증 취득,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기록하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이용한 다변화된 입시제도가 1997년도부터 도입됩니다. 이외에도 초중등교육 및 교원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

1981년부터 학력고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입시제도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1994학년도부터였습니다. 암기 위주로 줄세우기식 평가를 한다고 비판받던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새롭게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도입됩니다. 그리고 다시 각 대학이 본고사를 실시하여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하지만 다시 입시경쟁과 사교육 과열에 대한 비판 속에 대학별 본고사는 3년 만에 폐지됩니다.

1997학년도부터는 5·31 교육개혁에 따른 입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선발은 크게 수시 선발과 정시 선발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수시 선발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중 내신성적만을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전형, 대학별로 논술고사를 실시해 선발하는 논술전형, 어학·과학 등 특기자를 선발하는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 선발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부 성적 등을 더해 이루어집니다. 이외에도 대학 자체의 독자적 기준으로 정원 내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정원 내 특별전형 제도, 취업자를 선발하는 전형, 정원 외로 전문계고 졸업자를 선발하는 전형, 농어촌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형, 장애인 대상 전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상 전형,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거나 특수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학생을 선발하는 기회균형 전형 등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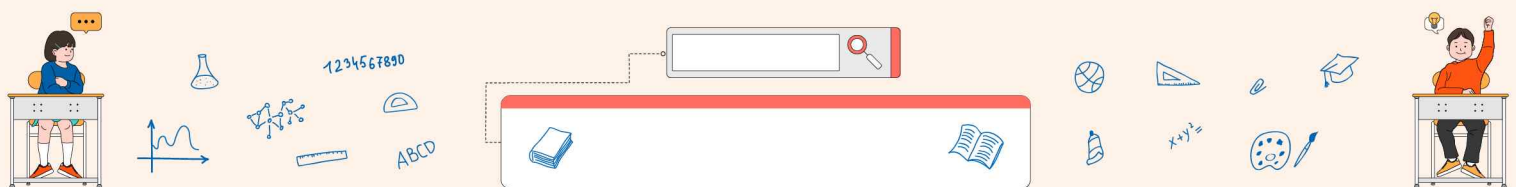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대학에는 신입학 이외에도 중도에 전입하는 편입학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2년 이상 수료하거나, 전문대를 졸업한 후 3학년으로 편입하는 일반편입과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 후 편입하는 학사편입으로 나누어집니다. 편입학 제도는 대학 정원 중 중도에 그만두거나 신입생으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보통 대학에서 자체 영어 시험 등으로 선발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고등교육의 형성 과정을 조선 시대 성균관부터 최근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대적인 고등교육 체계는 식민지기에 만들어지지만, 당시의 대학과 전문학교는 매우 제한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해방과 대한민국 건국 후 4년제 일반대학과 2~4년제 전문대학으로 나뉘어진 형태로 고등교육 제도가 정비됩니다. 전문대학은 처음에는 초급대학으로 불렸습니다.

이후 고등교육 정책은 사립대학에 대한 통제와 감독, 대학입시제도 개혁 등을 주된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1980년의 7·30 교육개혁은 졸업정원제를 도입했지만, 수 년만에 유명무실화됩니다.

1995년의 5·31 교육개혁에서는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내세웠고, 이후 사립대학 설립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학입시제도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원래 대학별로 선발하다가 1969년 대학입학 예비고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1982년부터는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하고 시험 이름을 대학입학학력고사로 바꿨습니다.

1994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되면서 잠시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했다가 다시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수능성적,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학별 논술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 입시제도가 실시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고등교육의 확산 과정을 통계자료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

고등교육의 확산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고등교육의 형성 과정을 조선 시대 성균관부터 최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고등교육의 확산 과정을 통계자료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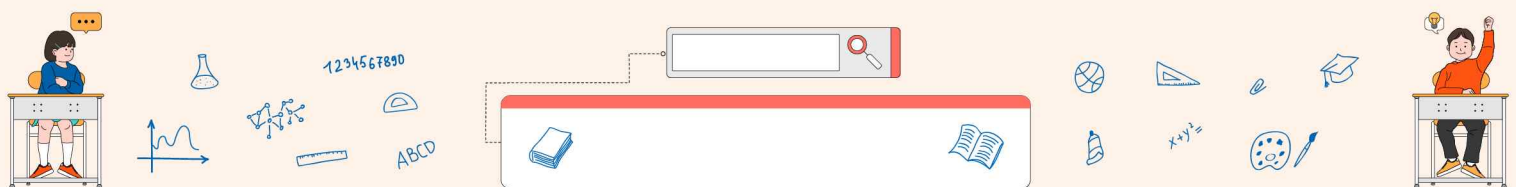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한국의 고등교육은 언제부터 이렇게 양적인 확대를 이루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한국 고등교육 확산 과정의 배경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1948년 당시 일반 4년제 대학교는 총 27개가 있었습니다. 국립대학 4개, 공립대학 4개, 사립대학 19개였습니다. 이후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빠르게 증가합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까지 대학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국립대는 8개, 사립대는 38개가 되었습니다. 공립대도 한 군데 더 세워져 다섯 개가 됩니다.

이후 한국 대학교육의 팽창은 사립대학이 주도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립대학교는 33개, 공립대학교는 1개인 반면 사립대학교의 수는 156개입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사립대학교의 수는 꾸준히 늘어왔지만, 특히 빠르게 증가한 시점은 1996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제정으로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공식화된 이후입니다.

1996년 108개였던 사립대학교의 수는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적용된 이후 1997년 124개교, 1998년 130개교로 늘어납니다. 8년 뒤인 2006년에는 150개교로 다시 늘어납니다.

대학설립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학생 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한국의 대학생 수는 7,879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에는 62,700명으로 늘어납니다. 1960년대에는 4년제 대학생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게 되고, 1975년에는 20만 명을 넘어섭니다. 이후 대학생 수는 더욱 빠르게 증가합니다. 1979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서고, 이후 매년 10만여 명이 늘어나며 1985년에는 93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1980년대 초반의 대학생 수 급증에는 졸업정원제 실시와 대학 정원 증가가 모두 영향을 주었습니다. 1988년에는 대학생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10년에는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4년제 대학생 수는 2014년 21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기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생 중 사립대학 재학생 비율은 절반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사립대학들이 다수 설립되면서 사립대 재학생의 비율 역시 빠르게 증가합니다. 대학생 중 사립대 학생 비율은 한국전쟁 기간에 절반을 넘어섰고, 1960년대에 70% 이상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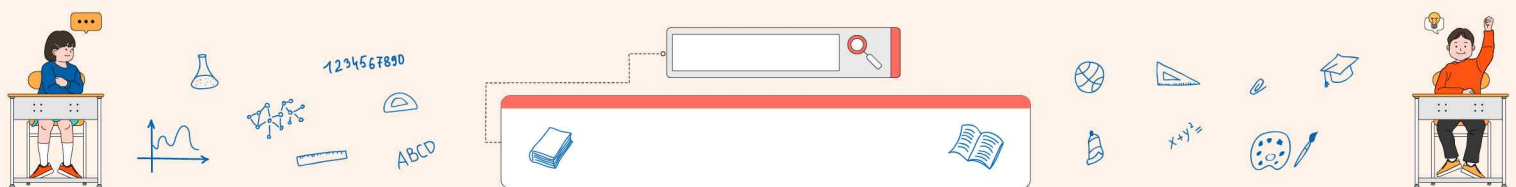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최근 4년제 대학생 중 사립대 학생 비율은 약 77% 정도입니다. 전체 대학교 수에서 사립대학교가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다소 작는데, 국립대의 규모가 사립대보다 보통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학생 수가 급증하던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사립대 학생 비율은 70%대로 꾸준했는데, 한국 대학교육의 급격한 팽창 과정에서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이 비슷한 비율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대학교육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제한적이었습니다. 대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1960년 이전에는 20% 이하였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도 25% 내외에 머물렀습니다. 전체 대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남학생 3명에 1명 정도였던 것입니다.

대학생 중 여성 비율은 1992년이 되어서야 30%를 넘어섭니다. 2014년이 되면서 40%를 넘었고, 2021년에는 43%를 나타냅니다. 대학생 중 여성 비율이 아직 50%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남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여학생들보다 더 길기 때문입니다.

재학 기간에는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한국의 대다수 남학생들이 대학 재학 중 휴학을 하고 군복무 의무를 이행한다는 사실도 이와 관련되어 보입니다. 각 연도별 대학 입학생의 성비를 보면 여학생 비율이 최근에는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한국 고등교육 팽창의 다른 한 축은 전문대학이었습니다. 1979년부터 전문대학으로 정비되기 이전까지 고등교육 과정의 전문교육은 다양했기 때문에 통계로 단순화하여 살펴보기 쉽지 않습니다.



1952년 2년제 초급대학 제도가 만들어졌을 당시 총 일곱 개의 초급대학이 있었습니다. 1960년 대가 되면 초급대학의 수는 30개를 넘어서지만, 초급대학이 고등교육과정 전문교육기관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1962년에는 기존의 간호 고등기술학교가 간호학교로 승격되어 초급대학 수준으로 운영이 됩니다.

1963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과정이 병합된 5년제 실업고등전문학교가 세워졌고, 1970년에는 2년제 전문학교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이후 간호학교들이 전문학교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1975년에는 실업고등전문학교들도 전문학교로 전환됩니다. 1979년이 되면 초급대학, 전문학교, 남아있던 간호학교가 모두 전문대학으로 정비됩니다.

1979년의 전문대학 수는 127개교였습니다. 이후 전문대학의 수는 1999년 161개까지 증가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영향, 일부 전문대학의 4년제 일반대학 전환 또는 통합을 통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전문대학 수는 134개교입니다.

1979년의 전문대학 학생 수는 75,000여 명이었습니다.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문대학 학생 수도 이후 빠르게 증가합니다. 1980년에는 두 배인 15만 명으로 늘어나고 1982년에는 20만 명을 넘어섭니다. 전문대 학생 수는 특히 1990년대에 빠르게 늘어납니다. 매년 5만여 명 이상 증가하면서 1990년 32만 명에서 2000년에는 91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전문대학 학생 수는 2002년에 96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다시 빠르게 감소합니다. 2021년에는 58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전문대학은 거의 대부분 사립 교육기관이었습니다. 1979년 127개 전문대학 중 국립이 20개, 공립은 16개였고, 사립은 70%가 넘는 91개였습니다. 이후 사립 전문대학들은 더 설립되었던 반면, 국공립 전문대학들은 일부 4년제 대학교로 전환되면서 줄어듭니다.

2021년 한국의 전문대학 수는 총 134개교였습니다. 이제 국립은 2개교, 공립은 7개교 밖에 없고, 93%인 125개교가 사립학교입니다. 이는 학생들 중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에서도 같게 나타납니다. 1979년 총 85%였던 전문대 학생 중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은 2021년에는 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대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일반대학 학생 중 여성 비율과 비슷합니다. 1979년 전문대의 여학생 비율은 24%였습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전문대 학생 중 여성 비율은 44%입니다.

한국 고등교육의 확대는 학교 설립 증가와 고등학생의 고등교육 진학률 증가가 함께 맞물려 이루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졸업 당해연도에 일반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1965년까지만 해도 30%를 밑돌았습니다. 고등교육 진학률은 1980년대가 되어서야 30%를 넘어섭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50%를 넘어서고, 2001년에는 70%를 상회합니다. 2005년 대학 진학률은 82.1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이후 다시 낮아져서 현재는 70%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의 졸업 당해연도 고등교육 진학률은 보통 남성보다 다소 낮았지만, 비슷한 추이를 보이며 증가합니다. 최근 여성의 고교 졸업 당해연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70% 후반 수준으로 남성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고등교육의 확대는 학교 설립뿐만 아니라 전임교원의 채용 증가를 통해서도 진행되었습니다. 1965년 4년제 일반 대학교의 전임교원, 즉 조교를 제외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전임강사의 수는 4,299명이었습니다. 2021년의 4년제 일반 대학교 전임교원 수는 154,409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달리 한국 대학 전임교원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1965년의 전임교원 4,299명 중 여성은 376명, 즉 8.7%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의 경우 여성 교원은 34%인 52,6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여성 교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이 펼쳐진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국공립대학의 여성 교원 비율이 아직 낮은 편이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원 중 여성 비율이 일반대학보다 높습니다. 1998년에 이미 교원 4명 중 한 명이 여성이었고, 2021년에는 전체 교원 중 여성 비율이 42%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고등교육의 확대 과정을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해 각각 통계를 살펴보며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 고등교육의 확대 과정에는 특히 사립기관의 역할이 컸습니다. 최근에도 4년제 일반 대학생 중 사립학교에 다니는 비중이 77%에 달합니다.

전문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립학교 재학생 비중이 98%에 달합니다. 대학교육의 팽창은 대학설립을 늘리면서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여성의 대학교육 기회도 처음에는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고등교육의 팽창은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을 통해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최근 전문대 교육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한국의 고등교육, 특히 4년제 대학교 중 국공립대학은 전임교원 중 여성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성 전임교원 비율을 늘리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최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등교육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3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고등교육의 확대 과정을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해 각각 통계를 살펴봄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등교육 이수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고등교육 이수에 따른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취업확률의 증가와 임금 등 보상수준의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무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초중등교육과 달리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등록금 지출 등 직접 비용 이외에도, 취업하는 대신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기회 비용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고등교육에 따른 노동시장의 성과 또는 보상, 즉 취업과 임금 수준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통계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문대 졸업자 취업률은 68.7%이고, 일반 4년제 대학교 졸업자 취업률은 61%로 약간 더 낮습니다.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최근 10년간 2014년과 2015년 사이를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전문대 졸업자 취업률은 59.3%에서 69.5%로, 일반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51.84%에서 64.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시작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취업률이 주요 지표로 반영되면서 발생한 결과로 보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2015년부터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시행되었는데, 취업률이 주요 지표가 되면서 이를 높이기 위해 대학들이 일부 졸업생을 직접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등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70% 수준인 이유는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졸업자 취업률은 졸업 직후의 상황만을 보는데, 실제 취업은 졸업 후 일정 시간이 더 경과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는 수치가 유지취업률입니다. 유지취업률은 졸업 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취업률입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고등교육기관의 전체 평균 유지취업률은 80.2%로 전문대학 취업률 70.9%와 일반대학 취업률 63.3%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나머지 20%가량의 학생들 중 6.5%는 대학과 대학원 등으로 진학합니다. 그 외에는 계속 취업 준비중이거나 군대에서 복무중이거나 취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유지취업률은 전공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2019년 기준으로 공학 계열이 84.8%로 가장 높고, 의약 계열과 교육 계열도 80%가 넘습니다. 사회계열은 79.1%이고,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은 이보다 낮습니다. 가장 낮은 계열은 예체능계열로 65.8%입니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기업유형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46%로 가장 큼니다. 그 다음으로 비영리법인이 17%로 많고, 대기업 11%, 중견기업 8%, 공공기관 및 공기업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6% 등으로 나타납니다.

고등교육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졸업 후 취업확률뿐만 아니라 졸업 후 받게 될 임금 수준의 상승, 즉 임금 프리미엄도 중요합니다. OECD 통계에 나타난 한국 전문대학 및 대학의 임금 프리미엄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상승했다가 2010년부터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제시된 수치는 25세부터 64세까지의 취업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의 평균 임금 수준을 100으로 정했을 때,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평균 임금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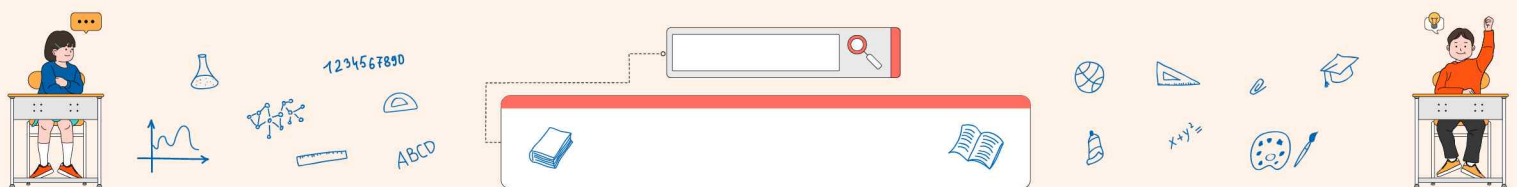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전문대학의 임금 프리미엄은 1998년에 106, 즉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의 평균 임금보다 6% 더 높았다가 2007년에는 118, 즉 18%까지 증가합니다.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발발하여 임금 프리미엄이 하락하지만 이후 2010년에는 이전 수준을 회복합니다. 그 뒤 15% 내지 16% 수준의 프리미엄을 보이다가 2016년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은 1998년 147, 즉 47%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고등학교만 졸업했을 때보다 임금 수준이 47% 더 높았습니다. 대졸 프리미엄은 2007년에 77%로 가장 높았다가 2010년부터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의 대학졸업 임금 프리미엄은 고등학교 졸업 임금의 36%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대와 대학을 졸업한 뒤의 취업률과 임금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유지취업률은 80% 수준이었습니다. 이 수준은 최근 수 년간 비슷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취업률은 전공 부문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는 대학 입시에서 각 전공별 선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2019년 기준으로 고등교육을 마칠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했을 때보다 전문대학 졸업생은 임금 수준이 8%가량, 일반대학 졸업생은 36%가량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임금 프리미엄은 최근에는 2007년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4

고등교육 정책이슈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전문대와 대학을 졸업한 뒤의 취업률과 임금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의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대학 구조조정입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 운영에 위기가 닥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 정책이 10여 년 전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과 인구 고령화 속에서 한국에서는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인구 규모가 대학 정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사립학교에 대한 의존이 큰데, 사립대학들의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아 대학의 운영을 등록금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충분히 충원되지 않고 등록금 수입이 충분하지 못하면 대학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대학구조조정정책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계대학들이 먼저 문 닫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 고등교육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정책의 핵심은 결국 어느 대학이 정원을 얼마나 감축할까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계대학의 도태를 막기 위해 우수한 대학들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노무현 정부부터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이른바 8·31 교육개혁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정책의 일부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국립대의 대학 간 통합을 통해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8개였던 국립대학이 통합을 통해 9개로 줄어듭니다. 정원도 7,26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서울대 등 16개 대학이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총 978억 원의 지원을 받으며 입학 정원을 7,440명 감축합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초기 교육정책의 기조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2011년 이른바 반값등록금 제도가 실시되면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늘어나고, 이를 배경으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국립대의 경우 대학 간 또는 학과의 통폐합이 이루어집니다. 총장과 학장의 교수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원의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이른바 선진화 정책들도 실시됩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경영 상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하고, 여러 지표상 문제가 더 큰 대학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경영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94개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 46개교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26개교가 경영부실대학으로 설정됩니다. 이중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지원받고 나름의 자구책을 펼치며 부실 대학의 꼬리표를 덜어냅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부실이 지속되었고, 그 결과 4개교가 폐교, 4개교는 통폐합, 2개교는 자진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까지는 한계대학을 선정하여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모든 대학들이 정원을 함께 감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의 위기를 더 심각하게 겪고 있던 지방대를 지원하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 수준을 차등하여 정하는 과정에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나누어 정원감축 비율을 안배했습니다. 정원감축 결과는 여전히 정부의 재정지원에 연계했습니다.

2015년에는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시작됩니다. 모든 대학을 A, B, C, D, E의 다섯 단계로 평가하고, 최하위인 D, E 등급 대학들은 다시 심사하여 최종 등급을 산출했습니다. 최상위 등급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하위 등급으로 갈수록 더 많은 정원을 감축하도록 정했습니다.



최하위인 D, E 등급 학교들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총 105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책과 함께 대학 정원은 약 47,000여 명 줄어듭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격으로 총 3주기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주기 평가와 2021년 3주기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이름을 바꾸어 실시합니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I의 다섯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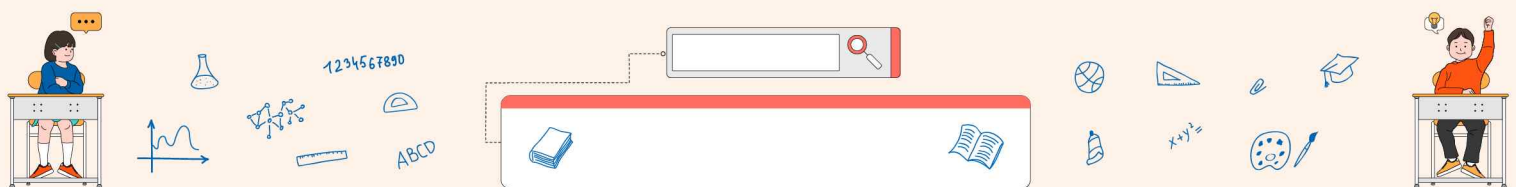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권고 규모가 달라졌고,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여부도 서로 달랐습니다. 최하등급인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I 대학 중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계대학으로 지정되었고, 컨설팅 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회생과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교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8년 평가에서 4년제 대학 중에서는 4개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 6개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I로 선정되었고, 1개 학교는 한계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대학들이 평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를 변경합니다. 다만 부실대학들이 평가를 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평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평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일부 제한되었습니다.

평가에 참여한 대학 중에서는 일반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였고, 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역시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일부 제한되었습니다. 총 136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고, 2개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 7개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I로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대학 등록금을 규제하고 대학생의 학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이명박 정부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규제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9년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대학에 대한 근로장학금 지원 금액을 정하는 데에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결정합니다. 등록금을 많이 올리는 대학에 대해 정부 장학금 지원을 줄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2010년에는 소득 연동 학비 대출제도가 도입됩니다. 당시 든든학자금제도로 불린 이 제도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한 등록금과 일정한 생활비까지 낮은 이자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해 주었습니다. 대출액의 상환은 졸업 이후 취업한 다음 발생하는 소득 금액에 연동되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및 증여 재산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의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여러 해 전부터 높은 대학 등록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치인들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1년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수단은 국가장학금의 확충과 대학 등록금의 동결 또는 인하였습니다.

우선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장학금 유형 I과 유형 II에 각각 7천 5백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유형 I은 소득분위 3분위까지 대학 등록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분위별로 차등 지급했습니다. 유형 II는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학별로 배분해서 지급했고, 대학에서 이를 장학금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경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형 II는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연동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대학 자구노력을 통한 등록금 부담 완화도 7천 5백억 원에 상당했는데, 대학들은 5%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하하고 교내 장학금을 확충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실제 2012년 전체 대학의 95%가 국가장학금 유형 II 사업에 참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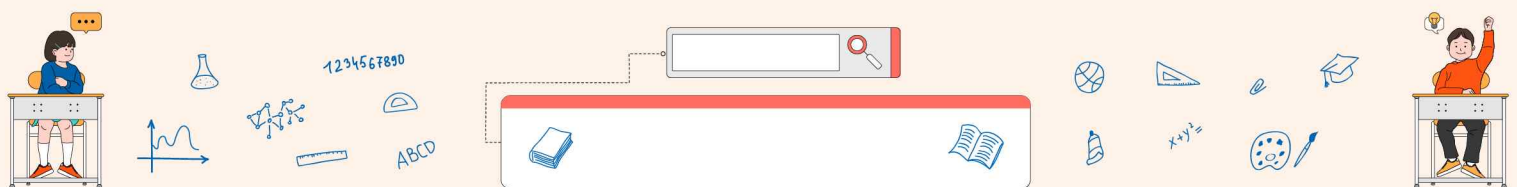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그리고 이후 2022년까지 한국 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동결된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의 재정은 등록금 수입에 상당히 의존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등록금 동결은 대학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 이슈들인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규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대학의 정원과 규모를 줄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대학평가와 등급제 등을 실시하여 통폐합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거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정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대학들도 정원을 감축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2011년 국가장학금 확대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겠다는 이 정책은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의 등록금을 동결시켰습니다.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등록금 수입에 대한 의존이 큰 한국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학원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

대학원 교육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 이슈들인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규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대학원 교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원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진학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자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한국 고등교육에서 대학원이 어떻게 확대되었고, 한국경제의 발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조망해보겠습니다.

해방 이후 마련된 학제에서는 일반 대학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952년 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위의 종류와 수학 연한 등이 규정됩니다. 이렇게 학술연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는 대학원이 일반대학원입니다.

1950년대 말부터는 새롭게 특수대학원이 만들어집니다. 1959년 서울대학교에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이 설치되었는데, 한국의 첫 특수대학원이었습니다.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고급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현재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보건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수대학원은 주로 석사과정으로 운영되고, 특수학위를 수여합니다.

전문대학원은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99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국제대학원 등이 있습니다. 전문대학원은 학교 및 과정에 따라 전문학위를 수여하기도 하고 일반대학원처럼 학술학위를 수여하기도 합니다.

한편 1997년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대학원만을 운영하는 대학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새롭게 등장한 대학원 과정만을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에는 45개의 대학원대학이 설립되어 운영중입니다.



1962년 한국에 설립된 대학원은 25개에 불과했습니다. 대학원 설립은 꾸준히 증가해서 1979년에는 100개가 됩니다. 이후 2003년에는 천 개를 넘어서고, 2021년에는 총 1,174개의 대학원이 운영중입니다. 대학원의 수는 다양한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들이 개설되기 시작하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1995년과 1998년 사이에 300개가 넘는 대학원이 새롭게 생겼고, 2000년 한 해에만 153개의 대학원이 설립되었습니다.

대학원 수가 늘어난 핵심 이유는 대학원의 학술, 전문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기술진보가 고도화되며,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재직자들이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능도 수행했습니다.

이른바 명문 대학교에 대한 선호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학원 과정은 학부보다 상대적으로 입학 하기에 어렵지 않다는 점도 대학원 교육 수요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각 대학들도 학부 과정과 달리 대학원은 등록금에 대한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았기 때문에 대학원을 적극적으로 신설하여 운영할 유인이 상당했습니다.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1980년의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5,552명이었습니다. 2021년이 되면 96,450명으로 증가합니다.

일반대학원의 석사와 박사 배출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 급증하며 석사학위 배출이 크게 늘어난 효과가 특히 주목할 만 했습니다. 최근에는 매년 80,000여 명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6,000여 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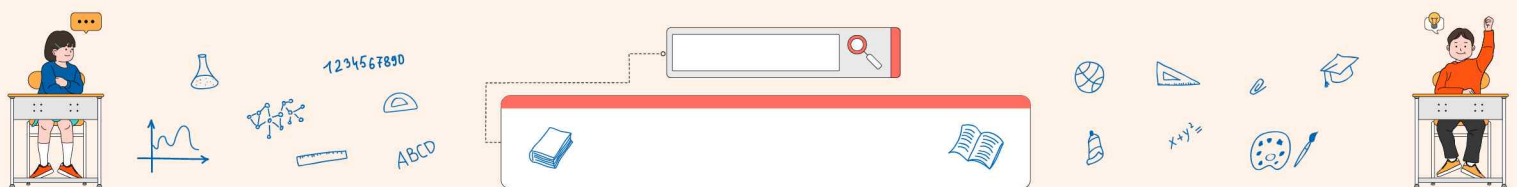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초기 대학원 학위취득자는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석사학위 취득자 중 43%, 박사학위 취득자 중 26% 만이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위취득자 중 여성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석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율은 54%로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율도 이제 40%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학원 교육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의 대학원은 학술 연구의 일반 대학원, 직장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특수 대학원,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대학원으로 분류됩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특수 대학원과 전문 대학원이 크게 늘어나며 대학원 교육의 팽창을 주도했습니다. 여성의 대학원 교육 이수도 늘어나 최근 석사학위 취득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제와 한국 교육> 다섯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고등교육이 식민지기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과정과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을 보일 정도로 확산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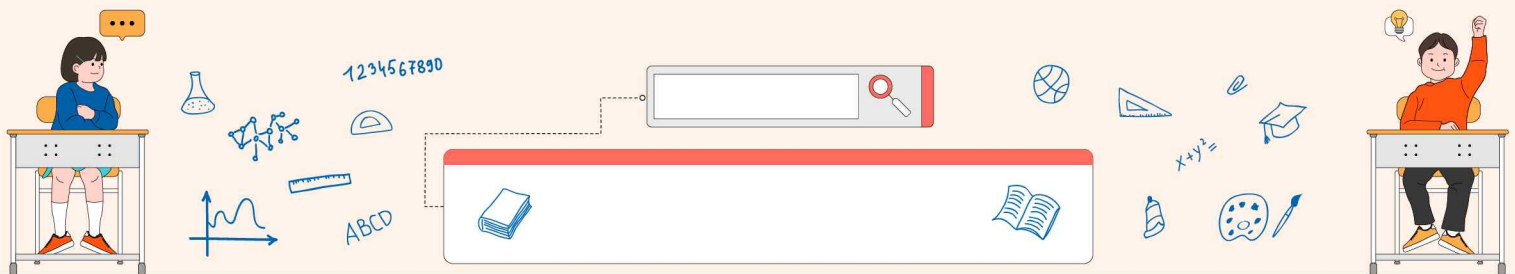
그리고 고등교육 진학의 배경이 되는 취업률과 임금 프리미엄에 대해 검토해봤습니다. 최근 고등교육 정책 이슈인 대학 구조조정과 반값 등록금 정책과 대학원 교육의 확대 과정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한국의 교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5

Higher Education

5-1

Formation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Korean Economy and School Education." My name is Go Sun. In this section, I will look at higher education in Korea.

Korea has one of the highest recent higher education enrollment rates in the world. I will look at how Korea has expanded higher education, and how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are related to each other. First of all, I will look at the beginning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Sungkyunkwan was Korea's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until the Joseon Dynasty. Sungkyunkwan selected students through examinations and conducted education to nurture officials, mainly teaching Confucian scriptures. Sungkyunkwan's tuition and dormitory fees wer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The goal of the students, namely Confucian scholars, was to become an official by passing the past examination. After the Gabo Reform, Sungkyunkwan was reorganized into a modern educational institution. It lost its function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in 1911, right after Joseon became a colony of Japan. In 1930, some of its educational functions were revived, and since its liberation, it has been the current Sungkyunkwan University.



Higher education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was carried out through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and several junior colleges. The forerunners of junior colleges were government junior colleges establish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A medical school was established in 1895, a law school was built in 1899, and a commercial school was opened in 1899.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junior colleges promulgated in 1915, these schools were reorganized as junior colleges in 1916. In 1924,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Japan's sixth imperial university, was established. Preparatory courses were established first, followed by faculties in 1926.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was operated as the only university in Korea during the colonial era. After the liberation, it was reorganized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Higher education during the colonial era was very limited, and Koreans and Japanese were educated together. Until 1943, there was one university,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and 20 junior colleges were in operation. For junior colleges, Korean students are 4,054 (57% of the total students). For Gyungseong Imperial University, the Korean students of preparatory courses were 200 (29%) and those of faculties were 335 (43%). Most of the students were male. However, there were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female students, such as Ewha Women's College, Gyeongseong Women's Medical College, and Sookmyung Women's College.

After the liberation, Korea's university education was reorganized during the US military rule. In 1946,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established by integrating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and nine junior colleges in Korea.

Gyeongseong Dental College was a private school, and the remaining eight schools were public schools. Other junior colleges have been promoted to general four-year universities. Yonhee College, Boseong College, and Ewha Women's College were the forerunners of Yonsei University, Korea University, and Ewha Women's University. In addition, the Chung-Ang Nursery School during the colonial era became the current Chung-Ang University, and the Dong-A Engineering Institute became the current Hanyang University.



Several private universities were additionally established by large landowners who were concerned about losing their land ahead of the land reform. In 1945, there were 7,819 students enrolled in 19 universities. In 1948, when the country was founded, the number increased to 24,000 students in 31 universities.

Professional education, which had led to professional departments in general universities, began to be implemented in earnest again in 1950 with the establishment of a 2-4 year junior college. The college leads to the current junior college in Korea.

After the enactment of the Education Act, the 6-3-3-4 school system was organized in 1951, and the higher education system was also reformed. Students complete 12 years of education, including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before enteri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ere divided into universities, teachers, and junior colleges. The university is a four-year course, and the college of science and dentistry is a six-year course. There was also a teacher's college for training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it was a two-year or four-year course. The teachers' college was transferred to a public university.

As mentioned earlier, the junior college was a two-yea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that was in charge of professional education such as technology and practical work. As mentioned in the description of secondary education, the training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t that time was in charge of the normal schools. Normal schools were operated as secondary education courses until then. From 1962, these normal schools were elevated to the national college of education, a two-year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nd these national colleges of education were sequentially reorganized into a four-year college of education.



Even in the 1950s, university education in Korea expanded. From the time of the Korean War to the end of the war, major national universities were established across the country. As the demand for university education increased, many private universities were established. Between 1952 and 1954, 16 new private universities were established or approved for promotion.

In 1955, the University Facility Standards Ordinance was enacted to prevent the indiscriminate increase of university education and to ensure the quality of education beyond a certain level. After the May 16 Military Coup in 1961, the military government implemented a new university reorganization policy. This policy set the quota for university students and restructured small universities. As a result, for four-year universities, the quota is reduced from 91,920 students in 71 schools and 679 departments to 66,410 students in 50 schools and 532 departments. Conversely, the number of vocational junior colleges increased, and normal schools were also promoted to colleges of education.

Even after that, the reorganization of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continued. The main goal was to regulate and control private universities, which led to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Private universities were often in poor financial condition. They were very dependent on student tuition, so they tried to take in as many students as possible.

So, although the university student quota regulation and the degree registration system were implemented, some private universities try to circumvent the regulation by using the auditing student system. Therefore, in 1969, the government first implemented a system to control the entrance quota based on test scores by conducting the preliminary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In the 1970s, the government promoted policies such as experimental universities and university specialization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general four-year universities. In 1972,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was opened. Since 1979, the existing vocational colleges have been unified into two-year or three-year junior colleges.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the demand for university education increased rapidly. As the population has grown and income levels have improved in Korea, the competition for college entrance exams has intensified. Since then, the university education policy has been aimed at expanding university education and reducing the burden of entrance exams.

The first attempt was the July 30 education reform in 1980. Competition for college entrance exams was overheated and private education such as tutoring was too prevalent,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So while private tutoring and after-school private classes were banned, the higher education system was reformed.

First of all, individual college entrance exams were prohibited in relation to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Instead, the rate at which high school reports are reflected in college admissions increased. The purpose was to enable students to enter a good university as long as they do well in school without preparing for a separate exam. The government eventually tried to abolish the preliminary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However, in 1982 the name was changed to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nd continued. The preliminary college examination was a system that selects 1.3 times the total quota of the university before the individual college entrance exam. However, since individual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were abolished, the term "preliminary" was omitted from the name. And the system that selects 1.3 times the total quota was also abolish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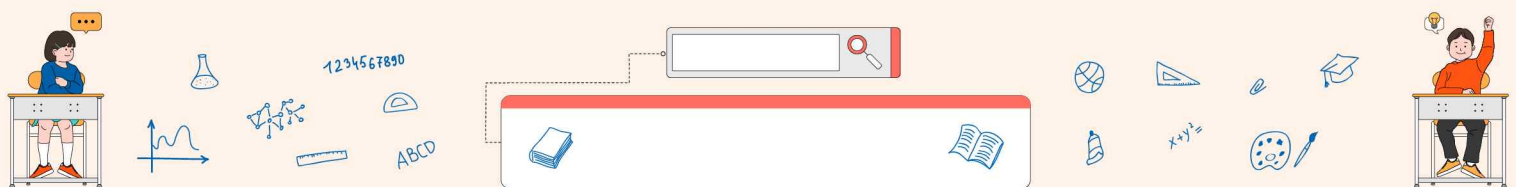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In addition, the graduation quota system was introduced. It was a system in which 130% of the graduating quota was selected, some were dropped from the curriculum, and only the students with the graduating quota graduated. However, the resistance was great, and the operation had many difficulties. A sudden 30%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also created a problem of deteriorating educational conditions. So, the graduation quota system became nominal in 1985.

The form of classes that were divided into daytime and nighttime classes was integrated into a full-time class system. The night course has now been changed to operate separately from the selection of new students. In addition, the university entrance quota also expanded. The education of the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was strengthened, and the colleges of education were promoted into four-year universities.

In 1995, the 5·31 education reform was newly implemented. First of all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policy basis for establishing an open education society and a lifelong learning society. In this regard, an academic credit bank system was introduced, a distance education support system was established, and opportunities for transfer admission were expanded. In university education, diversification, speci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were emphasized.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ies, quotas, and academic affairs are autonomous, and the connection between evaluation and financial support was strengthe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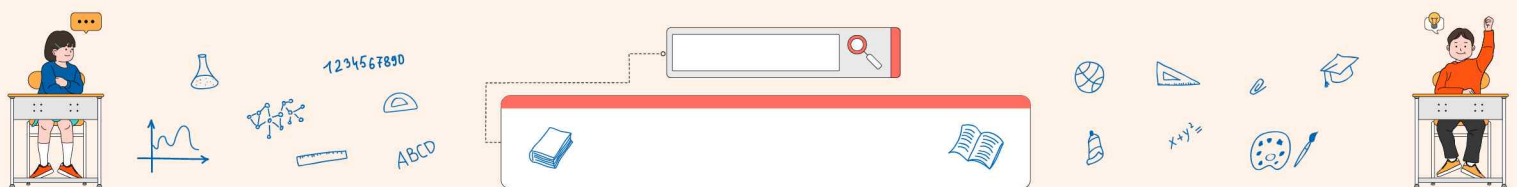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In addition to general graduate schools and special graduate schools, specialized graduate schools were also established. In particular, the university establishment regulations that autonomize university establishment were presented.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ment of a university, various standards can be set, and if certain standards are met, the university can be established freely. According to the university establishment regulations,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universiti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was also improved.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begin to create reports that record personal information, school records, attendance, licenses and certifications, subject learning development,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general opinions to select new students in upper schools. Further, an entrance system using school records was introduced in 1997. In addition, various reform measures related to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teacher training were implemented.

It was in the 1994 school year that the entrance system, which had been centered on academic ability tests since 1981, began to change. The academic ability test, which was criticized for focusing only on learning by note and university selection, was abolished. So, a new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was introduced. And each university could conduct individual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again to select students autonomously. However, amid criticism that these exams create fierce competition for university entrance and overheating of private tutoring, they were abolished after three years.

In the 1997 school year,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following the May 31 education reform was implemented in earnest. The selection was largely divided into a rolling selection and a regular selection. The rolling selection includes comprehensive student report selection that comprehensively reflects school reports, student subject report screening that reflects only high school records, essay writing selection, and special talents selection such as foreign language and science.



The regular selection is based o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and high school records. It includes also a special screening system within the quota that selects students from within the quota based on the university's own standards. It has a screening for selecting employed people, a screening for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and a screening for students in rural areas. There are a screening for the disabled, a screening for overseas Koreans and foreigners, and an equal opportunity screening for students who are socially marginalized or raised in special family environ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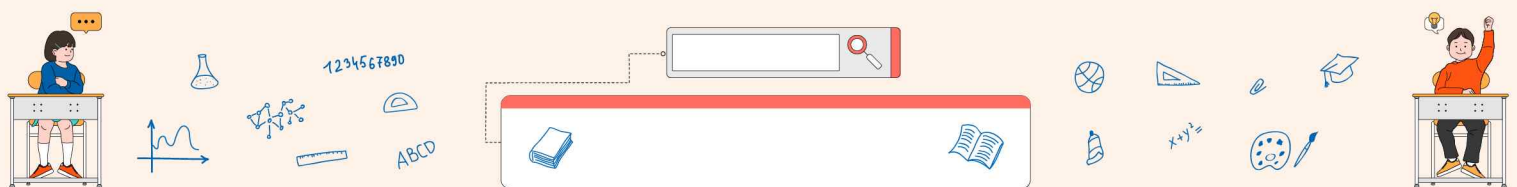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Along with freshman admission, students can enter universities through transfer admission. There is a junior-level transfer, where students who have completed two or more years of a four-year university or graduated from a junior college transfer to the third year. There is also a second bachelor's degree transfer where students after graduating from a four-year university or acquiring a bachelor's degree through the credit bank system transfer the university. The transfer system was introduced to fill the number of students who dropped out midway or were not selected as freshmen. Usually, universities select students through their English tests.

So far, I have summarized the formation process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from Sungkyunkwan in the Joseon Dynasty to recent universities. The modern higher education system in Korea was crea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Colleges and vocational schools at the time offered very limited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After the liberation and founding of Korea, the higher education system was reorganized into a four-year general university and a two-year or four-year junior college. Junior colleges were mainly responsible for vocational education.



Since then, higher education policies have focused on controlling and supervising private universities and reforming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The July 30 education reform in 1980 introduced the graduation quota system, but it became ineffective in a few years. The May 31 education reform in 1995 announced the university establishment regulations. And since then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universiti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system has also changed several times. Individual college entrance exams have been implemented, but the preliminary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was introduced in 1969. In 1982, the individual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was abolished, and the name was changed to the college test.

In 1994,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he individual college entrance exam was revived for a while but then it was abolished again. Currently, various entrance examination systems are implemented utilizing various factors such as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scores, high school records, and essays. Next time, I will examine the spreading process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using statistical data. Thank you.



5-2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Hello, everyone! Last time, I looked at the formation process of Korean higher education from the Joseon Dynasty to the present. This time, I will take a closer look at the spread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through statistical data.

When did Korea's higher education achieve such quantitative expansion? And what factors were behind the process of spreading higher education in Korea?

In 1948, there were a total of 27 four-year universities. There were four national universities, four public universities, and 19 private universities. Since then, the number of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nd private universities has grown rapidly. By 1954, right after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universities nearly doubled. There are eight national universities and 38 private universities. There were also five public universities with one additional public university.

Since then, the expansion of university education in Korea has been led by private universities. As of 2021, there are 33 national universities and 1 public university, while the number of private universities is 156. The number of private universities has steadily increased throughout Korean history. In particular, with the enactment of the university establishment regulations in 1996, the number of private universities increased rapidly.

The number of private universities increased from 108 in 1996 to 124 in 1997 and 130 in 1998 after the enactment. Eight years later, in 2006, the number increased again to 150.



As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ies steadily increased, the number of university student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At the time of the liberation in 1945, the number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was 7,879. However, in 1954, right after the Korean War, the number increased to 62,700. In the 1960s, the number of four-year college students exceeded 100,000, In 1975, the number surpassed 200,000. After that, the number of college students increased even more rapidly. In 1979, the number exceeded 300,000, followed by an increase of 100,000 every year, and in 1985, it increased to 930,000.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ollege students in the early 1980s was influenced by the graduation quota system's implementation and the university quota increase. In 1988, the number of college students exceeded 1 million, and in 2010, it exceeded 2 million. After peaking at 2.13 million in 2014, the number of four-year university students has been declining. This is because the school-age population is declining.

Until the colonial era, the ratio of private university students to college students was less than half. However, as many private colleges were established after the liberation, the ratio of private college students also increased rapidly. The ratio of private college students among college students exceeded half during the Korean War, and reached over 70% in the 1960s.

The ratio of private college students among recent four-year college students is about 77%. This is slightly smaller than the share of private universities in the total number of universities. This is because the scale of public universities is usually larger than private universities. Between the 1970s and the early 2000s , when the number of college students skyrocketed, the ratio of students to private universities remained steady at around 70%. That means that private universities and national universities expanded at a similar rate in the process of rapid expansion of Korean university education .



University education for women has been limited for quite some time. Prior to 1960, the proportion of female students among all college students was less than 20%. Even in the 1960s and 1970s, the proportion remained around 25%. The ratio of female students to all college students was about 1 to 3 male students.

It wasn't until 1992 that the ratio of women among university students exceeded 30%. In 2014, the ratio exceeded 40%, and in 2021 it was 43%. One of the reasons why the female share of university students is still less than 50% is that male students have been in school longer than female students. Several factors may influence the period of the enrollment of male students. But, It seems related that most male students in Korea take a leave of absence while attending college and fulfill their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Looking at the gender ratio of college entrants each year, the female ratio has recently been close to 50%.

Another axis of Korea's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was junior colleges. Before 1979 when being reorganized as a junior college, the vocational education of the higher education course was diverse. So, it is not easy to look at the course by simplifying to statistics.

When the two-year junior college system was established in 1952, there were a total of seven junior colleges. By the 1960s, the number of junior colleges exceeded 30, but they were not the only ones in charge of professional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higher education course. In 1962, the existing high-tech nursing schools were elevated to nursing schools and operated at the junior college education level. In 1963, a five-year technical college that merged vocational high school and junior college courses was established. In 1970, a two-year vocational school system was established. Then, nursing schools began to be converted into vocational schools, and in 1975, technical colleges were also converted into vocational schools. In 1879, vocational schools and nursing schools were established as junior colle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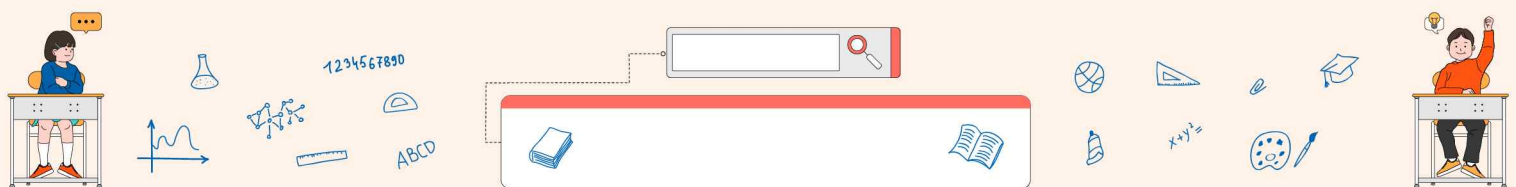
The number of junior colleges in 1979 was 127. Since then, the number of junior colleges has increased to 161 in 1999. The number is decreasing due to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structure restructuring, and the conversion of some junior colleges to four-year general universities. As of 2021, the number of junior colleges in Korea was 134.

In 1979, the number of junior college students was 75,000. Like regular universities, the number of junior college students increased rapidly. The number doubled to 150,000 in 1980 and exceeded 200,000 in 1982. The number of junior college students grew rapidly in the 1990s. The number rose from 320,000 in 1990 to 910,000 in 2000, increasing by more than 50,000 each year. The number of junior college students peaked at 960,000 in 2002, then rapidly declined. In 2021, the number was reduced to 580,000.

Almost all junior colleges were private schools. In 1979, among 127 junior colleges, 20 were national, 16 were public, and 91 were private, accounting for more than 70%. Later, more private junior colleges were established, while national and public junior colleges decreased as some were converted to four-year universities.

In 2021, the number of junior colleges in Korea totaled 134. Now, there are only two national schools and seven public schools, and 125 schools (93%) are private schools. This ratio is also reflected in the ratio of private school students among all junior college students. The ratio of private school students to junior college students was 85% in 1979, recording 98% in 2021.

The ratio of female students among junior college students is similar to that of female students in general university students. In 1979, the ratio of female students in junior colleges was 24%. Since then, it has steadily increased and now the proportion of women among junior college students is 44%.



Higher education in Korea has been expanded along with an increase in the establishment of schools and an increase in the rate of high school students. Until 1965, the ratio of high school graduates who went on to junior or general colleges in the year of graduation was less than 30%. The higher education enrollment rate has exceeded 30% since the 1980s.

Since then, it has steadily increased, exceeding 50% in 1995 and 70% in 2001. The college entrance rate in 2005 was the highest at 82.12%. Since then, it has declined again and is currently showing around 70%.

The rate of women's enrollment in higher education in the year of graduation has usually been slightly lower than that of men. However, it has increased at a similar rate. Recently, the rate of women enteri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year of graduation is beyond 70%, slightly higher than that of men.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has not only progress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chools but also through increased recruitment of full-time teachers. In 1965, the number of professors, associate professors, assistant professors, and full-time lecturers excluding assistants at four-year universities was 4,299. The number of full-time professors at four-year general universities in 2021 was 154,409.

Unlik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e ratio of women among full-time professors at universities in Korea is low. Of the 4,299 full-time professors in 1965, only 376 (8.7%) were female. In 2021, female professors increased to 52,652 (34%). It was the result of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female professors in the 2000s. However, the ratio of female professors in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is still low. So, various policy efforts to expand this ratio are continuing.



In the case of junior colleges, the proportion of women among professors is higher than that of general universities. In 1998, one in four professors was already a woman. In 2021, the ratio of women among the entire faculty members shows 42%.

So far, I have summarized the expansion process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by examining statistics for general universities and junior colleges respectively. Private school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Even recently, 77% of all four-year college students attend private schools.

For junior college students, the proportion of private school students reaches 98%. The expansion of university education has been driven by the increased establishment of universities and the expanding proportion of students going on to university. Opportunity for women's university education was very limited but are now expanded to be on par with men's.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has been driven by four-year colleges as well as junior colleges. However, the share of a junior college education has declined in recent years due to a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Higher education in Korea, especially in national and public universities among four-year universities, has a low percentage of women among full-time professors. Therefore,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increase the ratio of full-time female professors. Next time, I will look at the achievements of higher education. Thank you.



5-3

Higher Education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Hello, everyone! Last time, I summarized the expansion process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by examining statistics for general universities and junior colleges. This time, I will look at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completion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choose universities or junior colleges upon graduating from high school because they expect the achievement of higher education. These achievements provide students with higher job opportunities and higher wages.

Unlik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which is provided free of charge by the government,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to complete higher education in Korea. In addition to direct costs such as tuition fees, the opportunity cost of studying at school instead of getting a job is also considerable. I will take a look at the performance or compensation of the labor market according to Korea's higher education, that is, the level of employment and wages.

Since 2011, the employment statistics of graduat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ave been identified in connection with the health insurance database. As of 2020, the employment rate for junior college graduates was 68.7%. The employment rate for four-year university graduates was slightly lower at 61%.

The employment rate for junior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s has maintained a similar level over the past ten years, except between 2014 and 2015. Between 2014 and 2015, the employment rate for junior college graduates rose from 59.3% to 69.5%. The employment rate for general university graduate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51.84% to 64.4%.



This is because the employment rate was reflected as a key indicator in the university structure reform evaluation that began in 2015. In response to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has been conducted since 2015 to restructure universities such as reduction of quotas. Universities have directly hired some graduates in temporary jobs to increase employment rates.

The employment rate of junior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s was around 70%, but the employment period was not sufficiently considered. The graduate employment rate only looks at the situation right after graduation. Actual employment may take place after a certain amount of time has elapsed after graduation. The number calculated by reflecting this factor is the retained employment rate. The retained employment rate is the employment rate at the point of 11 months after graduation. According to the 2019 statistics,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verall average retained employment rate is 80.2%. The employment rate of junior colleges (70.9%) is higher than that of general universities (63.3%). Among the remaining 20% of such graduates, 6.5% of graduates go on to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There are various graduates who prepare for employment, serve in the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or do not get a job.

The retained employment rate for higher education graduates differs by major. As of 2019, engineering majors account for the highest at 84.8%, followed by medicine and education with over 80%. Social science majors accounted for 79.1%, and science and humanities majors were lower. The lowest group is the arts and sports majors at 65.8%.

Looking at the employment rate of the graduates by company type, SMEs account for the largest share at 46%. It is followed by non-profit corporations at 17%, large corporations at 11%, medium-sized corporations at 8%,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corporations at 8%, and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t 6%.



In addition to the higher opportunity for employment after graduation, higher wages, that is, the wage premium, act as an important factor for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According to OECD statistics, the wage premium of junior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Korea rose from 1998 to 2007, but has been on a slight decline since 2010. The figures presented in this graph set the average wage level for employed people aged 25 to 64 with a high school diploma at 100. And it represents the average wage level for people who graduated from a junior college or university.

The junior college wage premium rose from 106, which is 6% higher than the average wage for high school graduates, in 1998 to 118 in 2000. In 2008, the wage premium fell due to the outbreak of the financial crisis, but then recovered to its previous level in 2010. After that, it showed a premium of 15% to 16%, and has been declining since 2016.

The university wage premium was 147 (47%) in 1998. College graduates earned 47% higher wages than high school graduates. The university graduate premium was the highest at 77% in 2007, but has been on a decline since 2010. In 2019, the wage premium for university graduates fell to 36% of high school graduate wages.

So far, I have looked at employment rates and wage levels after graduating from junior colleges and universities. As of 2019, the retained employment rate 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as around 80%. This level has been similar in recent years. The employment rate varies somewhat depending on major. This also affects the preference for each major in college entrance.

As of 2019, college graduates earned 8% higher wages, and general university graduates generated 36% higher wages than high school graduates. This wage premium peaked in 2007 and has been declining since then. Next time, I will look at issues related to Korea's higher education policy. Thank you.



5-4 Higher Education Policy Issues

Hello, everyone! Last time, I examined the employment rate and wage levels after junior college and university graduates. This time, I will review some issues of recent higher education policy in Korea.

The first is college restructuring. As the school-age population declined, the university operation faced a crisis. A restructuring policy to respond to this crisis has been in place since ten years ago.

Amid a declining birth rate and an aging population, the school-age population is rapidly declining in Korea. Therefore, the school-age population is predicted to be smaller than the university quota. Higher education in Korea is highly dependent on private schools. But, private universities are largely dependent on tuition income for their operation due to in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So, if private schools fail to receive enough students and tuition income, they become difficult to run.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aims to avoid the situation in which marginal universities are closed. It also plans to adjust the higher education system reasonably. The core of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ultimately is to select which schools are restructured and how many students are reduced. So, some criticize that the quota of excellent universities is reduced in order to prevent marginal universities from being eliminated.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began in earnest with the Rho Moo Hyun government. In 2004,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August 31 education reform policy. The reform included a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This included autonomous quota reduction through the integ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This policy had some achievements. From 2005 to 2008, 18 national universities were reduced to 9 through integration. The number of 7,267 students was c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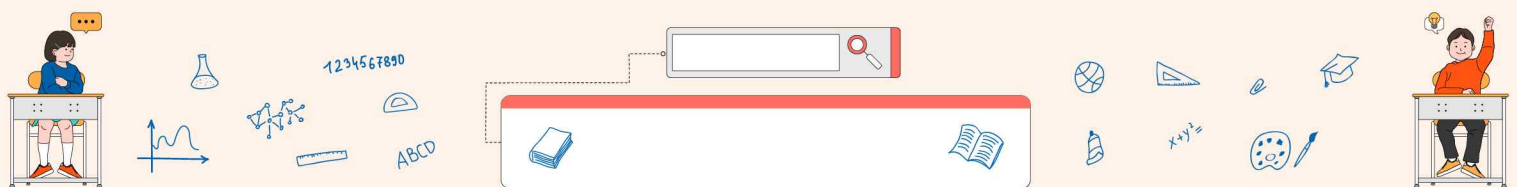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Between 2005 and 2008, the support project for universities leading the structural reform was implemented. It was a policy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universities leading the structural reform where they voluntarily reduced their quotas. Sixteen universities, includ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were selected as leading universities for structural reform. They received a total of 97.8 billion won in support and reduced the number of admissions by 7,440.

In 2008, the Lee Myung Bak government guaranteed and supported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However,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half-price tuition system in 2011, the government increased the financial support for universities. Against this backdrop, the government began to develop a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National universities were merged between universities or departments. Advancement policies were implemented, such as abolishing the direct election system for the president and introducing a performance-based salary system for professors.

Private universities were restructured with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Through management evaluation, the government selected universities with limited financial support, Universities with greater problems in various indicators were selected as universities with limited student loans, and those with serious management problems as universities with poor management.

Accordingly, a total of 94 universities were designated as universities with limited financial support, 46 universities as universities with limited student loans, and 26 schools as universities with poor management. Most of these universities have disobeyed the government's instructions and taken self-solutions to eliminate the label of poor universities. However, some universities continued to be poor. As a result, four universities closed, four universities merged, and two universities voluntarily closed.



In 2013, the Park Geun Hye government changed the basis of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While previous governments have selected poor universities and merged or closed them, the government reduced the quota of all universities together.

This was intended to support local universities that were experiencing a more serious crisis of school-age population reduction. Therefore, in the process of quota reduction through university evaluation, the ratio of quota reduction was divided between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regional universities, and general universities and junior colleges. The result of the quota reduction still affected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In 2015, a new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began. All universities were evaluated on a five-point scale of A, B, C, D, and E, and the lowest ranked D and E universities were reviewed again to calculate the final grade. Top-tier universities did not have to cut their seats. Universities with lower grades had to cut more and more seats.

The lowest D and E grade schools were excluded from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rojects, national scholarship support, and student loan support. In 2015, a total of 105 universities were selected as universities subject to financial aid restrictions. With the new policy, the university's quota was reduced by about 47,000.

The Park Geun Hye government's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was designed to evaluate universities in a total of three cycles at four-year intervals from 2014 to 2022. The Moon Jae In government conducted the second cycle evaluation in 2018 and the third cycle evaluation in 2021. In 2018, this evaluation was evaluated in five stages: self-improvement universities, capacity-building universities, universities excluded from the evaluation, financial aid-limited universities (type I), and financial aid-limited universities (type II).



Depending on the evaluation results, the size of the recommendation for quota reduction differed, and the government's participation in financial support projects also varied. If financial aid-limited universities (type II) were judged to be difficult to operate normally, they were designated as marginal universities. In spite of government support, if it was judged that the revival and normal operation of the university was impossible, it could be closed.

In the 2018 evaluation, among four-year universities, four schools were selected as type I, six schools were selected as type II, and one school was selected as a marginal university.

In 2021, the evaluation system was changed so that universities autonomously decide whether or not to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However, in order to prevent marginal universities from avoiding the evaluation, the government first designated universities with limited financial support before deciding whether to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The other universities could autonomously decide whether or not to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Universities that do not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have been partially restricted from participating in financial support projects. Among the universities that participated in the evaluation, general financial support universities were selected. Universities that were not selected were also partially restricted from participating in the projects. A total of 136 universities were selected as general financial aid universities, two universities were designated as type I, and seven universities as type II.

Policies to regulate college tuition and support university students' tuition began in earnest under the Lee Myung Bak government. It was in 2009 that regulations on college tuition first began. At that time, it was decided to reflect the tuition increase rate of each university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government work scholarship support for universities. The intention was to reduce government scholarship support for universities with high tuition fees.



In 2010, an income-linked tuition loan system was introduced. The system provided loans through the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at a low interest rate, including tuition and living expenses. The repayment of the loan was linked to the amount of income earned after graduation and employment. It is a method of compulsory repayment of a certain amount when the annual income exceeds the standard income for redemption or when inherited or gifted property occurs. This system continues to operate to this day.

In 2011, the half-price tuition policy was implemented in earnest. As concerns about the burden of high college tuition grew many years ago, politicians started to put forward the slogan of half-price tuition. In 2011,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alleviate the burden of university students' tuition fees and implemented the policy in earnest. The two means to realize half-price tuition were the expansion of national scholarships and the freezing or reduction of university tuition.

First of all, the government provided a national scholarship worth 1.5 trillion won. Each KRW 750 billion has been allocated to the National Scholarship Type I and Type II. Type I provided differentiated national scholarships for college tuition up to the 3rd quintile by income quintile. In Type II, national scholarships were allocated and paid to each university based on the number of students in the 7th income quintile or lower. It was a way for each university to use national scholarships to reduce the tuition of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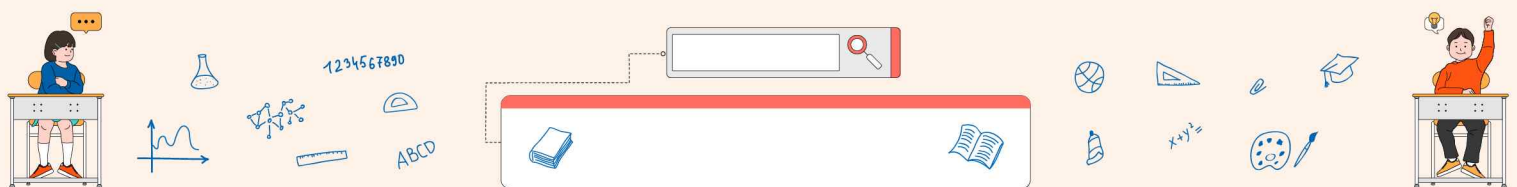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Type II was paid in connection with the university's self-efforts to alleviate the tuition burden. Universities also reduced the burden of tuition through self-efforts worth 750 billion won. Universities were required to cut tuition by 5% and expand on-campus scholarships. In fact, 95% of all universities in 2012 participated in the project of National Scholarship Type II.



And until 2022, the tuition level of Korean universities continued to be frozen. The finances of Korean universities are heavily dependent on tuition income. A long-term freeze on tuition fees is exacerbating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universities.

So far, I have summarized the major issues of higher education policy in Korea, such as university restructuring and tuition regulation.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s implemented to respond to the decline in the school age population. As the population decreases, the focus is on reducing the number and size of universities. This policy implements university evaluation and grading system, and restructuring through merger or abolition. Or, it reduces the number of quotas on a differential basis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s. In addition, with the intention of supporting local universities, universities with relatively good conditions and good reputations are required to reduce their quotas.

The half-price tuition policy was implemented in earnest in 2011 along with the expansion of national scholarships. This policy, which reduces the tuition burden of college students by half, not only provides scholarship support but also freezes college tuition. Despite rising inflation, university tuition has been frozen for over ten years, exacerbating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universities, which rely heavily on tuition income. Next time, I will look at graduate school education. Thank you.



5-5

Graduate School Education

Hello, everyone! Last time, I summarized the major issues of Korea's higher education policy: university restructuring and tuition regulation. This time, I will look at graduate education in Korea.

Graduate schools are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produce master's and doctorate degrees for graduates of four-year colleges. I will take a look at how graduate schools expanded in Korean higher education and what role they played i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The academic system established after the liberation stipulated that graduate schools could be established in general universitie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ducation Act of 1952 stipulates the types of degrees and the length of study. Graduate schools that focus on academic research are general graduate schools.

At the end of the 1950s, a new special graduate school was established. In 1959,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were establish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se were the first special graduate schools in Korea. Special graduate school is an institution that conducts continuing education for professionals or general adults, and aims to nurture high-level professionals.

Currently, special graduate schools are operated in various forms, including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graduate schools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s of public health, and graduate schools of social welfare. Special graduate schools are mainly operated as master's programs and confer special degree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was introduced in 1998 to foster high-level professional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s include medical schools, law schools, business schools, theology schools, and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s confer professional degrees depending on the school and course, or academic degrees like general graduate schools.

According to the 1997 university establishment regulations, it became possible to establish a university that operates only graduate schools. Since then, the graduate university has operated only graduate school education programs. As of 2021, 45 graduate universit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are operating in Korea.

In 1962, there were only 25 graduate schools established in Korea. The number of graduate schools has steadily increased, reaching 100 in 1979. Since then, in 2003, the number has exceeded 1,000, and in 2021, a total of 1,174 graduate schools are in operation. The number of graduate school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s variou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s and special graduate schools have begun to open. Between 1995 and 1998, more than 300 graduate schools were created. In 2000 alone, 153 graduate schools were established.

The key reason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graduate schools was the growing demand for academic and professional education at graduate schools.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have also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demand for graduate-level trained professionals. Special graduate schools also formed a network where experts in a specific field could exchange. Graduate schools are relatively less difficult to get into than undergraduate programs. The preference for prestigious universities remains in Korea. These factors have also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demand for graduate education. Unlike undergraduate courses, graduate schools were relatively less regulated on tuition fees. There was a considerable incentive to actively establish and operate graduate schools.



The number of master's and doctoral degree holders ha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In 1980, the number of master's and doctoral degree holders was 5,552. By 2021, that number has increased to 96,450. The number of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in general graduate schools has also steadily increased. Since the mid-1990s, the number of professional graduate schools and special graduate schools has soared, and the number of master's degre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about 80,000 people have been getting their master's degrees, and about 16,000 people get their doctoral degrees ever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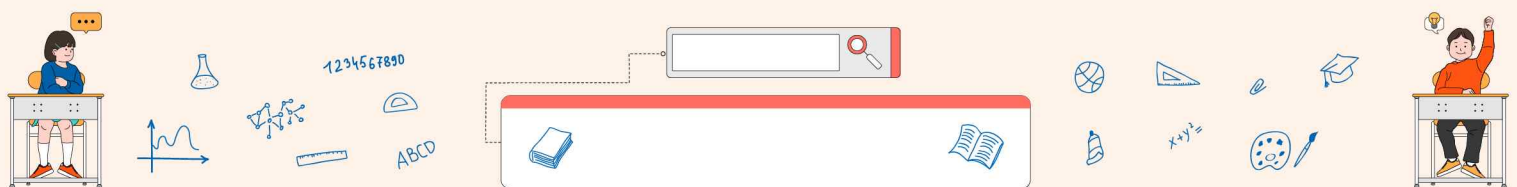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Early graduate degree holders were mostly male. By 2005, only 43% of master's degree holders and 26% of doctoral degree holders were women. However, the proportion of women among such degree holders is steadily rising. As of 2021, the proportion of women among master's degree holders was 54%, more than men. The proportion of women among doctoral degree holders is now close to 40%.

So far, I have summarized the graduate education in Korea. Graduate schools in Korea are classified into general graduate schools for academic research, special graduate schools mainly targeting office workers, and specialized graduate schools for nurturing high-level professionals. Since the mid-1990s, special and professional graduate school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expanding graduate education. The number of women completing graduate education has also increased, and more women than men have recently obtained a master's degree.

Let me wrap up the fifth section on "The Korean Economy and School Education." In this section, I looked at higher education in Korea. We looked at how Korea's higher education has been formed from the colonial era to the present, and how it has achieved the highest higher education enrollment rate in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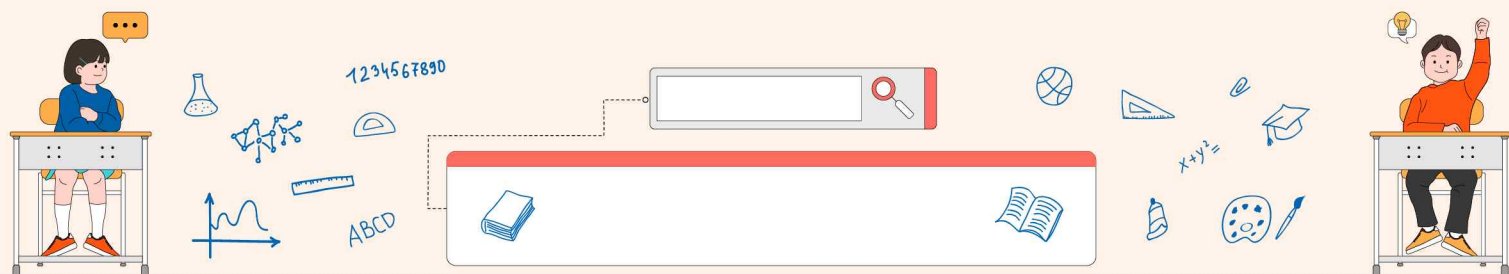
I also reviewed the employment rate and wage premium, which are the background of higher education. I also examined the recent higher education policy issues, such as university restructuring, the half-price tuition policy, and the expansion of graduate education. In the sixth section, I will look at teachers in Korea.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5周

高等教育

5-1

韩国高等教育的形成

学员们，大家好。我是负责《韩国经济与韩国教育》讲座的高鲜。在这次讲座中，我们来考察韩国的高等教育。

韩国是最近全世界高等教育升学率最高的国家之一。那让我们来看看现在高等教育扩张的背景是什么，以及韩国经济的发展和高等教育的扩张是如何相互关联的。首先让我们回顾一下韩国高等教育的出发点。

到朝鲜时代为止，韩国代表性的高等教育机构是成均馆。成均馆通过考试选拔了学生，并进行了管理培养教育，主要教授儒学经典。成均馆的学费和宿舍费是由政府支援的。成均馆的学生，即儒生，目标是通过科举考试，即大科，成为官员。

成均馆在甲午改革后重组为近代教育机构，但在朝鲜成为日本殖民地后的1911年丧失了教育机构的功能。此后，1930年重新恢复了部分教育功能，解放后又延续到现在成为了成均馆大学。

殖民地时期的高等教育是通过京城帝国大学和多所专科学校进行的。专科学校的前身是大韩帝国末期设立的官立专科学校。

1899年成立的医学院、1895年成立的法官培训所、1899年成立的商学院等延续了此后的命脉，根据1915年颁布的专科学校规则，从1916年开始改为专业学校。另外，1924年成立了日本第六所帝国大学-京城帝国大学。首先设立了预科课程，随后于1926年设立了院系。京城帝国大学是殖民地时期运营的韩国唯一的大学，解放后改编为国立首尔大学。

殖民地时期的高等教育十分有限，朝鲜人和日本人一起接受了教育。到1943年为止，大学有京城帝国大学1所，专科学校有20所。



朝鲜学生中，专科学校的学生为4054名，占全体学生的57%，京城帝国大学的学生为200名，预科的学生为29%，本科的学生为335名，占43%。学生中大部分为男性，但也有梨花女子专科学校、京城女子医学专科学校、淑明女子专科学校等针对女生的教育机构。

解放后，韩国的大学教育在美军统治期间进行了重组。1946年，将京城帝国大学和京城经济专科学校、京城牙科专科学校、京城法学专科学校、京城医学专科学校、京城矿山专科学校、京城师范学校、京城工业专科学校、京城女子师范学校、水原农林专科学校的9所专科学校合并，设立了国立首尔大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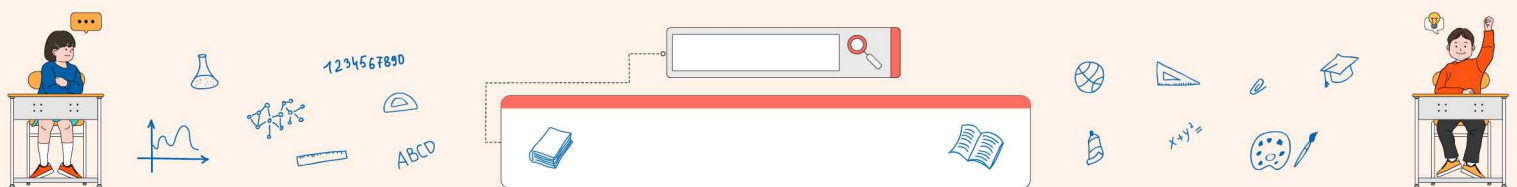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京城牙科专科学校是私立学校，其余8所专科学校为公立学校。其他专科学校升格为四年制普通大学。延禧专科学校、普城专科学校、梨花女子专科学校等是现在延世大学、高丽大学、梨花女子大学的前身。另外，殖民地时期的中央保育学校是现在的中央大学，东亚工科学院现在是汉阳大学。

另一方面，在土地改革之前，一些担心失去土地的大地主们亲自设立或捐赠土地，设立了多所私立大学。1945年，当时19所大学共有7819名学生，建国1948年后规模扩大到31所大学共有24000多名学生。

另外，从1950年，随着2至4年制的初级大学的设立，链接普通大学专门部门的专业教育再次开始认真实施。初级大学通向现在的专科大学。

教育法制定后，随着确定1951年6-3-3-4学制，高等教育体制也被重新整顿。将结束小学、初中、高中的12年教育后进入高中。大致分为大学、师范大学、初级大学。大学是4年制，理科大学或牙科大学是6年制课程。还有为了培养中学教员的师范大学，是2年制或4年制。师范大学后来被转为普通大学。

如之前所述，初级大学是两年制的短期高等教育机构，负责技术、实务等专业教育。正如我在介绍中等教育时提到的那样，当时初等学校教师的培养由师范学校负责，这时的师范学校还是中等教育课程。师范学校从1962年起被升格为两年制高等教育机构-国立教育大学。然后从1981年开始依次重组为4年制教育大学。



1950年代韩国的大学教育也在膨胀。从朝鲜战争时期到战争结束后，全国设立了主要的国立大学。随着对大学教育需求的增加，也成立了很多私立大学，1952年至1954年间共有16所私立大学新成立或升格。

为了防止大学教育的盲目增长，确保教育质量达到一定水平，1955年制定了大学设备基准令。1961年5.16军事政变后，随着军事政权的上台，大学整顿政策再次实施。

确定大学生名额，并对小规模大学进行了结构调整，四年制大学从71所学校的679个学科，91920个名额减少到50所学校的532个学科，66410个名额。相反，实业系的初级大学增加，师范学校也被升格为教育大学。

此后，大学教育制度的整顿仍在持续。主要内容是限制并控制一些主导大学教育膨胀的私立大学。私立大学的财政状况往往不是很好，对学生学费的依赖很大，所以会尽可能多招收学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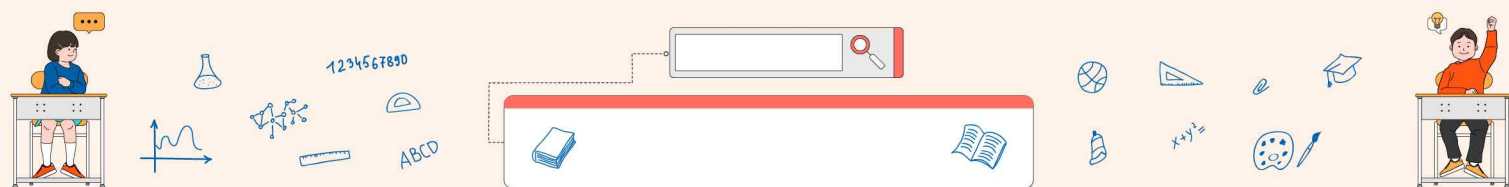
虽然实行了大学学生定员令和学位注册制，但一些私立大学试图利用旁课生制度来逃避限制。因此，在1969年韩国首次出现了通过高考预考来控制录取名额的制度。

1970年代，政府推进了实验大学、大学特色化等政策，支持普通四年制大学的发展。1972年，成立了韩国广播通信大学。从1979年开始，原有的初级大学和专科学校成为了两年制或三年制的专科学校。

在经济增长过程中，对大学教育的需求快速增长。随着人口的增加和收入水平的提高，高考竞争也进一步加剧。从这一时期开始，大学教育政策朝着扩大大学教育、减轻高考负担的方向发展。

第一次教育改革是1980年的七三零教育改革。因为当时高考竞争过热，课外辅导等私教育过于盛行，成为社会问题。因此，在禁止课外辅导和补习学院的同时进行了高等教育制度改革。

首先，关于高考，各大学禁止自行选拔考试，即正式考试。相反，增加高中成绩反映在大学入学铨衡(考核)中的比率。其宗旨是为了在没有其他考试准备的情况下，只要好好学习，就能考上好大学。预备考试也打算最终废除，但从1982年开始更名为大学入学学力考试。



预备考试原本是在正式考试之前选拔大学总定员1.3倍的制度，但由于不再进行正式考试，因此名称中去掉了“预备”的名称，也废除了先过滤总定员1.3倍的制度。

此外，还将引入定员毕业制度。是选拔130%的毕业名额，在教育过程中淘汰一部分，只让定员毕业的制度。但当时有很多反对的声音，且在实际运营上也有很多困难。学生人数突然增加30%，还出现了教育条件恶化的问题。所以定员毕业制从1985年开始变得有名无实。

将分白天和夜间开设课程的形式合并为全日制，实施全日授课制度。夜间课程现以改为从新生选拔开始分开运营。此外，还将扩大大学入学定员。加强广播通信大学的教育，并实现了教育大学四年制升级。

1995年实施全新的5•31教育改革。首先，公布建立开放教育社会和终身学习社会基础的政策基调。在这方面，引入了学分银行制，建立远程教育支援体制，扩大转学机会。大学教育强调多样化、特色化与国际化。大学成立、定员和教务变成自主化，并加强了评估与财政支持的联系。

继普通研究生院和特殊研究生院之后，还将设置专门研究生院。特别是提出了自主成立大学的大学成立准则主义。根据学校的成立目的和特点，将标准多样化，如果满足一定的标准，学校将可以自由成立。根据大学成立准则主义，此后私立大学的成立明显大幅度增加。

也改善了的大学入学制度。为了用于选拔上级学校的新生，在中小学和高中开始制作学校生活记录簿，记录个人情况、学籍、出勤、取得的资格证和认证、课程学习发展情况、行为特点和综合意见等。而且，利用学校生活记录簿等的多元化入学考试制度将从1997年开始引进。除此之外，还将实施与中小学教育和教师培训相关的各种改革措施。

从1981年开始以学力考试为中心的入学考试制度，在1994年开始发生了变化。因由背诵为主进行排队式评价而受到批评的学力考试被废除，新的高考被引入。然后，各大学再次进行正式考试，可以自主地选拔学生。但是再次在对高考竞争和课外辅导过热的批评下，各大学的正式考试时隔3年再次被废除。



从1997年开始，随着5•31教育改革，开始正式实施入学考试制度。选拔大致分为自律选拔的“随时”和根据正式考试选拔的‘定时’来进行。随时选拔有综合反映学校生活记录的学生簿综合銓衡、只反映高中内申成绩的学生簿课程銓衡（考核）、各大学实施论述考试选拔的论述銓衡、选拔语言、科学等特长生的特长生銓衡。

根据高考成绩进行的选拔是以高考成绩为中心，加上学生簿成绩等进行的。除此之外，以大学自身的独立标准，在名额内选拔学生的定员内特别录取制度、选拔就业者的銓衡、在定员外选拔专科高中毕业生的銓衡、以农渔村地区学生为对象的銓衡、以残疾人为对象的銓衡、在外国国民及外国人为对象的銓衡、还有选拔被社会疏远或在特殊家庭环境中长大的学生的机会均衡銓衡等。

大学除了新入学之外，还可以进入中途转入的插班入学。分为4年制大学结业2年以上或专科毕业后转入3年制的普通转学和4年制大学毕业或通过学分银行制获得学士学位后转入的学士转学。插班入学制是大学为了弥补中途辍学或选拔新生缺口而引入的。一般在大学通过自校的英语考试等选拔。

到此为止我们整理了从朝鲜时代的成均馆到最近韩国高等教育的形成过程。现代的高等教育体系建立在殖民地时期，但当时的大学和专业学校提供了非常有限的高等教育机会。解放并大韩民国建国后，高等教育制度分为4年制的普通大学和2~4年制的专科大学。最初专科大学被称为初级大学。

此后，高等教育政策以控制并监督私立大学、改革高考制度等为主要内容展开。1980年的7•30教育改革引入了定员毕业制，但没过多久便名存实亡。

在1995年的5•31教育改革中提出了大学成立准则主义，此后私立大学的成立大幅增加。高考制度也改变了很多次。原本按大学选拔，1969年引入大学入学预备考试制度，1982年起废除各大学的正式考试，将考试名称改为大学入学学力考试。

1994年，随着高考的引进，各大学的正式考试暂时恢复，但后来再次被废除。目前正在实施利用高考成绩、高中生活记录簿、各大学论述等多种因素的入学考试制度。下一节课，我们将以统计资料的形式了解韩国高等教育的扩散过程。谢谢。



5-2

高等教育的扩散

学员们，大家好！在上一节课上回顾了从朝鲜时代的成均馆到最近韩国高等教育的形成过程。本节课我们将通过统计资料详细了解韩国高等教育的扩散过程。

韩国的高等教育是从什么时候开始实现量的扩大的呢？还有，韩国高等教育扩散过程的背景有哪些因素？

1948年时，普通四年制大学共有27所。国立大学4所，公立大学4所，私立大学19所。此后，国立和私立大学都在快速增长。直到韩国战争之后的1954年，大学数量增加了近一倍。国立大学有8所，私立大学有38所。公立大学也多建了一所，成了五所。

此后，韩国的私立大学主导了大学教育的扩张。截至2021年，国立大学共有33所，公立大学1所，私立大学156所。在韩国历史中，私立大学的数量一直在增加，尤其是在1996年《大学成立运营条例》颁布后，大学成立准则主义正式化之后出现了快速增长。

私立大学的数量从1996年的108所增加到了1997年的124所，1998年的130所。8年后的2006年，再次增加到了150所学校。

随着大学数量的稳步增加，大学生人数也大幅增加。1945年解放时，韩国大学生人数为7,879人。但在韩国战争结束后的1954年，人数增至62,700人。1960年代，四年制大学生人数超过了10万人，1975年超过20万人。此后，大学生人数增长更快。1979年超过30万人，此后每年都增加10万多人，1985年已经增加到了93万人。

1980年代初期的大学生人数剧增受到了定员毕业制的实施和大学定员人数增加的影响。1988年大学生人数超过了100万人，2010年超过200万人。4年制大学生人数在2014年达到213万人的顶峰后，最近呈减少趋势。其原因是因为学龄人口正在减少。



殖民地时期时，大学生中私立大学的在校生的比率还不到一半。但在解放后，随着许多私立大学的成立，私立大学在校生的比率也在迅速增加。大学生中私立大学的学生比率在朝鲜战争期间超过了一半，在1960年代达到70%以上。

最近4年制大学生中私立大学学生的比率约为77%左右。这略小于私立大学在大学总数中所占的比率，但这是因为国立大学的规模通常比私立大学更大一些。另外，从大学生人数剧增的1970年代到2000年代初，私立大学的学生比率一直保持在70%左右，但在韩国大学教育急剧膨胀的过程中，私立大学的比率不断扩大到了和国立大学差不多的程度。

对女性的大学教育在很长一段时期内都有限。大学生中女学生的比率在1960年以前是20%以下。1960年代和70年代也仅为25%左右。在全体大学生中，女生的比例为每3名男生对应1名左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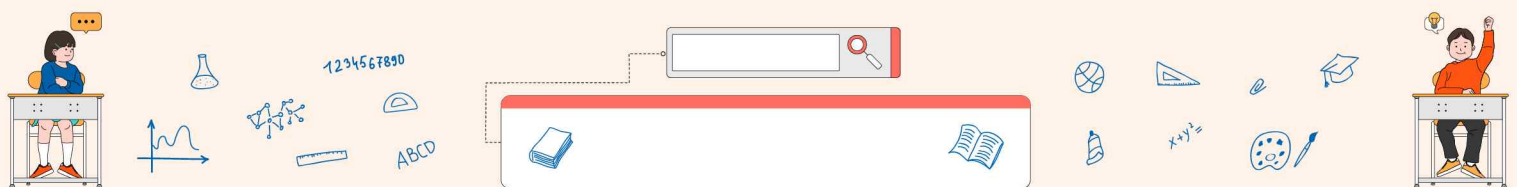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大学生中女性比率到1992年才超过30%。2014年超过40%，2021年达到43%。大学生中女性比率还不到50%的原因之一是男生的在校时间比女生更长。

在校期间可能会受到各种因素的影响，但韩国大多数男生都在大学在校期间休学并履行服役义务的事实似乎也与此相关。从各年度高考生的性别比来看，最近女生的比率接近50%。

韩国高等教育膨胀的另一个轴心是专科大学。从1979年被整顿为专科大学之前，高等教育课程的专科教育多种多样，因此很难简化为统计数据。

1952年建立2年制初级大学制度时，共有7所初级大学。到了1960年代，初级大学的数量已经超过了30所，但初级大学并不是高等教育课程专门教育机构的全部。1962年，原有的护理高等技术学校被升格为护校，以初级大学的水平运营。

1963年建立了实业高中和专科大学课程合并的5年制实业高等专科学校，1970年建立了2年制专科学校制度。此后，护学开始转为专科学校，1975年，职业高等专科学校也转为专科学校。到1979年，初级大学、专科学校和剩下的护校都将被整修成专科大学。



1979년의专科大学共有127所。此后，专科大学的数量在1999年增加到161所，但由于学龄人口减少的影响、经济增长和产业结构调整的影响、部分专科大学转换为4年制普通大学或通过合并进行结构调整等原因，其数量正在减少。以2021年为准，韩国的专科大学数量为134所。

1979년의专科大学学生人数约为75000多人。与普通大学一样，专科大学的学生人数也在此后迅速增加。1980年增加到15万人，翻了一番，1982年超过20万人。专科学校的学生人数迅速增长，特别是在1990年代。每年增加5万多人，从1990年的32万人增加到了2000年的91万人。专科大学的学生人数在2002年达到96万人的顶峰，此后再次快速下降。2021年减少到58万人。

专科大学几乎都是私立教育机构。1979年，127所专科大学中，国立学校有20所，公立学校16所，私立学校有占70%以上的91所。此后，私立专科大学进一步成立，而公立专科大学则随着部分四年制大学的转型而减少。

2021年韩国的专科大学总数为134所。现在国立只有2所，公立只有7所，93%的125所是私立学校。这在学生中私立学校在校生的比率中也表现相同。专科大学学生中私立学校的学生比率从1979年的85%提高到2021年的98%。

另外，专科大学的学生中女性的比率与普通大学学生中女性的比率相似。1979年专科大学的女生比率为24%。此后不断增加，目前专科大学的学生中女性比率为44%。

韩国高等教育的扩大是学校成立数量的增加和高中生高等教育升学率的增加共同作用的结果。高中毕业生在毕业当年进入普通大学或专科大学的比率直到1965年还低于30%。高等教育升学率到1980年代才超过了30%。

此后经过不断增长，1995年超过50%，2001年超过70%。2005年的大学升学率最高，为82.12%，此后再次下降，目前处于70%左右的水平。

女性毕业生在毕业当年的高等教育升学率比普通男性略低，但趋势相似，有所增加。最近女性高校毕业当年度的高等教育机构升学率在70%左右，比男性略高。



韩国高等教育的扩大不仅是通过学校的成立，还是通过增加专职教员的招聘进行的。1965年，4年制普通大学的专职教师，即除助教外，教授、副教授、助理教授和专职讲师的人数为4299人。2021年的四年制普通大学的专职教师人数为154409人。

与初等学校、中学校、高中不同，韩国大学的专职教师中女性的比率偏低。1965年的4299名专职教师中，女性只有376人，即8.7%。2021年，女教师增至52652人，占34%。这以是进入2000年代后，为扩大女教师比率而采取的政策的结果。特别是国、公立大学的女教师比率还比较低，为扩大这一比率的政策努力还在继续。

专科大学教师中女性的比率高于普通大学。1998年，每4名教员中就有一名是女性，2021年，全体教员中女性的比率达到42%。

至此，我们通过分别考察普通大学和短期大学的统计数据，总结了韩国高等教育的扩张过程。在韩国高等教育的扩大过程中，私立机构的作用尤其大。最近4年制普通大学生中，就读于私立学校学生占总数的77%。

以专科学校的学生为例，私立学校的在校生占98%。大学教育的膨胀是因为随着大学成立数量的增加，同时上大学的学生比率也在增加。并且，最初女性的大学教育机会也非常有限，但现在已经扩大到与男性同等的水平。

韩国高等教育的扩张不仅仅在4年制大学实现，也通过专科大学实现了类似的扩张。但由于学龄人口减少和产业结构变化等原因，最近专科大学的教育比重呈下降趋势。

另外，韩国的高等教育，特别是4年制大学，国、公立大学的专职教师中女性的比率偏低。因此，为了增加女性专职教师的比率，最近正在实施各种政策。下一节课，让我们来看看高等教育的成果。谢谢。



5-3**高等教育的劳动市场成果**

学员们，大家好。上节课我们对韩国高等教育扩大的过程，对普通大学和专科大学分别进行了统计和整理。本节课我们将了解一下高等教育进修带来的劳动市场成果。

高中毕业后选择大学或专科大学的原因是期待通过接受高等教育取得成果。这些成果表现为就业率的增加和工资等补偿水平的提高。

与国家免费提供的中小学教育不同，韩国的高等教育学费相当昂贵。除了学费支出等直接成本外，在学校学习而不是就业所产生的机会成本也将成为考虑对象。那么，让我们来看看韩国高等教育带来的劳动市场成果或补偿，即就业和工资水平如何。

从2011年开始，我们可以了解到与健康保险数据库联系的高等教育机构毕业生的就业统计。以2020年为准，专科学校的毕业生就业率为68.7%，普通四年制大学毕业生就业率为61%，略低。

专科大学和大学毕业生就业率在除了2014年和2015年之间的最近10年里一直保持着相似的水平。2014年至2015年间，专科学校的毕业生就业率从59.3%大幅增加到69.5%，普通高校毕业生就业率从51.84%大幅增加到64.4%。

这似乎是2015年开始的大学体制改革评估中将就业率作为关键指标反映出来的结果。为了应对学龄人口的减少，进行减少定员等大学结构调整，从2015年开始实施大学体制改革评估，就业率成为主要指标，为了提高这一指标，大学直接聘用部分毕业生担任临时工等产生了影响。

专科大学和大学毕业生的就业率为70%的原因是没有充分考虑到就业所需的时间。毕业生就业率只看毕业不久后的情况，实际就业可能会在毕业一段时间后完成。可以反映这一点的数据为维持就业率。维持就业率是毕业后11个月的就业率。



2019年统计显示，高等教育机构整体平均维持就业率为80.2%，高于专科大学就业率的70.9%和普通大学就业率的63.3%。其余20%左右的学生中，6.5%进入大学和研究生院等。除此之外，还有一些人还在准备就业、在军队服兵役或选择不就业。

高等教育机构毕业生的维持就业率因专业而异。以2019年为准，工学类最高，占84.8%，医药类和教育类也超过80%。社会学类为79.1%，自然科学类与人文文学类比这还要低。最低的系列是艺体能学类，占65.8%。

从高等教育机构毕业生在各企业类型就业者中的比重来看，中小企业最多，占46%。其次是非营利企业，占17%，大企业占11%，中坚企业占8%，公共机关和公共企业占8%，国家和地方自治团体占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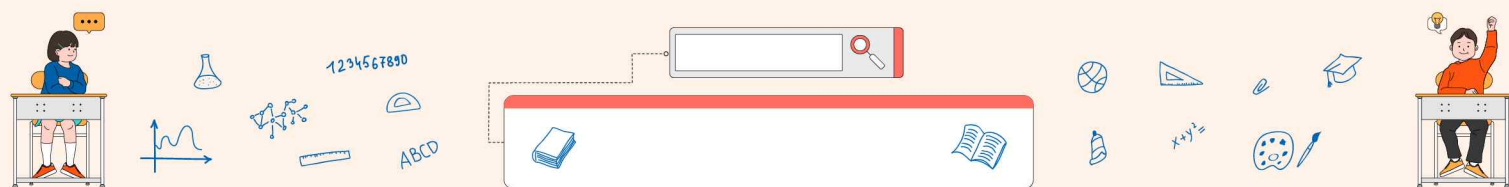
决定投资高等教育的因素不仅是毕业后的就业概率，毕业后工资水平的上升，即工资溢价也很重要。据OECD统计显示，韩国专科大学和大学的工资溢价从1998年到2007年有所上升，但从2010年开始有所下降。

该图中给出的数字表明，如果将25岁至64岁的就业者中高中毕业学历者的平均工资水平定为100，那么从专科大学或大学毕业的人的平均工资水平是多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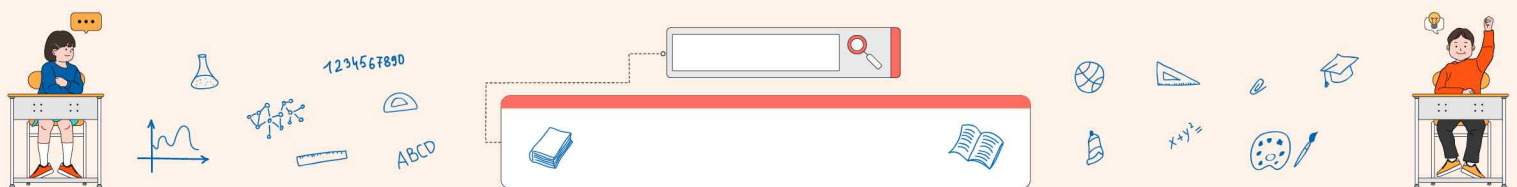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专科大学的工资溢价在1998年为106，即比高中毕业学历者的平均工资高出6%，2007年增加到118，即18%。2008年爆发金融危机，工资溢价下降，但2010年恢复到以前的水平。之后溢价为15%至16%，从2016年开始下降。

大学毕业的工资溢价在1998年为147，即47%。大学毕业后的工资水平要比高中毕业时高出47%。大学毕业生的工资溢价在2007年最高，达到77%，从2010年开始呈下降趋势。2019年的大学毕业工资溢价降至高中毕业学历者工资的36%。

到目前为止，我们对专科大学和大学毕业后的就业率和工资水平进行了调查。以2019年为准，高等教育机构的维持就业率为80%。这一水平在最近几年里一直保持着相似的水平。就业率因专业不同而有所差异，这也会影响大学入学时对各专业的偏好。



此外，如果以2019年为准完成了高等教育的话，专科大学毕业生的工资水平要比高中毕业学历者毕业后就业时高出8%左右，普通大学毕业生要高出36%左右。这些工资溢价在2007年达到最高值，之后呈下降趋势。下一节课上，让我们来看看有关韩国高等教育政策的话题。谢谢。



5-4

高等教育政策热点

各位学员，大家好！在上一节课，我们了解了专科大学和大学毕业后的就业率与工资水平。这节课，我们将对最近韩国高等教育政策的几个话题进行讨论。

第一是大学结构调整。随着学龄人口的减少，大学的运营面临危机，为了应对这种情况，从10多年前开始实施结构调整政策。

在生育率下降和人口老龄化的背景下，韩国的学龄人口正在迅速减少。因此，据预测，学龄人口规模将低于大学定员人数。韩国的高等教育对私立学校的依赖很大，而私立大学因为财政余力不足，大学的运营主要依赖学费收入。所以，如果学生不充足导致收入的学费不够，那么大学运营会变得很困难。

大学结构调整政策是由政府主管的，以避免在这种危机中极限大学率先关闭的情况，合理调整高等教育体系。结构调整政策的核心在于哪所大学最终会减少多少名额的问题。因此，一些人提出为了防止极限大学被淘汰，减少优秀大学定员人数的批评。

大学结构调整政策是从卢武铉政府时期正式开始的。卢武铉政府于2004年公布所谓8•31教育改革政策。作为这项政策的一部分，其中包括大学结构调整政策，特别是通过国立大学的大学间合并，引导自率减少定员的内容。也确实取得了成果。从2005年到2008年，18所国立大学通过合并减少到9所。定员人员也减少了7267人。

2005年至2008年实施了结构改革先驱大学支援项目。这是一项为自主减少定员的结构改革先驱大学提供财政支持的政策。首尔大学等16所大学被评为结构改革先驱大学，共获得978亿韩元的支援，将入学定员减少了7440人。

2008年李明博政府上台后，初期教育政策的基调是保障和支持大学的自率性。但随着2011年所谓半价学费制度的实施，对大学的财政支援增加，以此为背景，大学结构调整政策开始展开。



国立大学实施了大学之间或学科之间的合并。并废除了校长和院长的教授直选制，引入教师成果年薪制等所谓先进化政策。

关于私立大学，结构调整是通过与政府财政支持相联系的方式进行的。通过管理状况评估，筛选出财政支援限制大学，将各项指标问题较大的大学列为助学贷款受限大学，将管理问题严重的大学列为经营不良大学予以公布。

因此，共有94所学校被设定为财政支援限制大学，46所学校被设定为助学贷款受限大学，26所学校被设定为经营不良大学。其中，大部分大学得到了政府的咨询支持，展开自己的自救措施，减轻了不良大学的标签。但还有部分大学持续亏损，结果导致4所停办学校，4所合并学校，2所主动停办学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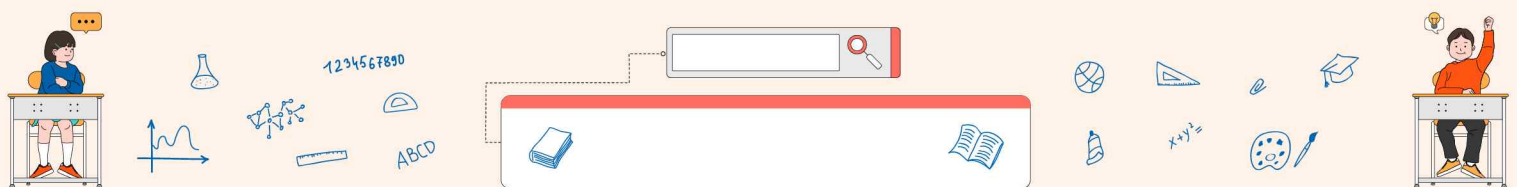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2013年朴槿惠政府上台后，大学结构调整政策的基调发生变化。如果说以前是通过选定极限大学进行合并或关闭的方式，那么现在所有大学都转向一起减少定员人数的方向。

这是为了支援面临学龄人口减少危机的地方大学。因此，在通过大学评估确定减少定员水平的过程中，将首都圈大学和地方大学、普通大学和专科大学进行了划分，并安排了减少定员比率。减少定员的结果仍然与政府的财政支持挂钩。

2015年开始新的大学结构改革评估。将所有大学评价为A、B、C、D、E五个阶段，排名垫底的D、E等级大学重新进行审查，得出最终等级。顶级大学不需要裁减名额，但随着等级的下降，需要裁减更多的名额。

排名垫底的D、E等级学校被排除在政府财政援助、国家奖学金援助、助学金援助等对象之外。2015年，共有105所大学被评为财政资助受限大学。随着新政策的实施，大学名额将减少了约47000人。

朴槿惠政府的大学结构改革评估旨在从2014年到2022年，每隔4年进行3个周期的评估。文在寅政府在2018年第二周期评的估和2021年第三周期的评估更名为大学基本能力评估。2018年大学基本能力评估分为自律改善大学、能力强化大学、排除诊断的大学、财政资助受限大学I类、财政资助受限大学II类五个阶段。



根据评估结果，建议减少定员人员的规模有所不同，政府是否参与财政资助项目也有所不同。在最低等级的财政资助受限大学Ⅱ类大学中，如果被判断为很难正常运营，就被指定为极限大学，即使得到咨询等支援，如果认为大学无法复苏并正常运营，就可以将其停办。

在2018年的评估中，4年制大学中有4所被评为财政资助受限大学Ⅰ类，6所被评为财政资助受限大学Ⅱ类，还有1所被评为极限大学。

2021改变制度，让大学自率决定是否参与评估。但为了防止不良大学逃避评估，在决定是否参与评估之前，首先指定了财政资助受限大学。其他大学可以自主决定是否参与评估，但如果不参与评估，一些财政资助项目的参与将会受到限制。

在参与评估的大学中，选定了普通财政资助大学，如果没有被选定，财政资助项目的参与也会受到一些限制。共有136所学校被评为普通财政资助大学，2所被评为财政资助受限大学Ⅰ类型，7所被评为财政资助受限大学Ⅱ类型。

另外，限制大学学费并支援大学生学费的政策从李明博政府开始正式启动。对大学学费的限制始于2009年。当时决定反映各大学的学费增长率来确定大学的政府劳动奖学金支持金额。目的是为了减少政府对学费上涨较多的大学的奖学金支援。

2010年引入收入联动学费贷款制度。当时被称为可靠的学费制度的该制度是通过韩国奖学财团以低利息给学生们贷款入学金加学费和一定的生活费。贷款额的偿还与毕业后就业后产生的收入金额挂钩。如果年收入超过偿还标准收入或发生继承和赠与财产时，则有义务偿还一定金额。该制度至今仍在运行。

2011年开始正式实施所谓“半价学费”政策。很多年前开始，人们对大学学费负担过重的担忧越来越大，政界人界们开始提出半价学费的口号。并于2011年公布缓解大学生学费的负担方案，并正式实施。实现半价学费的两种手段是通过扩充国家奖学金和冻结或降低大学学费实现的。



首先发放1.5万亿韩元规模的国家奖学金。国家奖学金I类和II类各分配了7500亿韩元。I类是在收入等级3等级区间之前，按等级支付了大学学费的国家奖学金。II类是以收入7等级区间以下的学生人数为标准，按大学分配支付的，大学将其用作奖学金来减轻学生学费的方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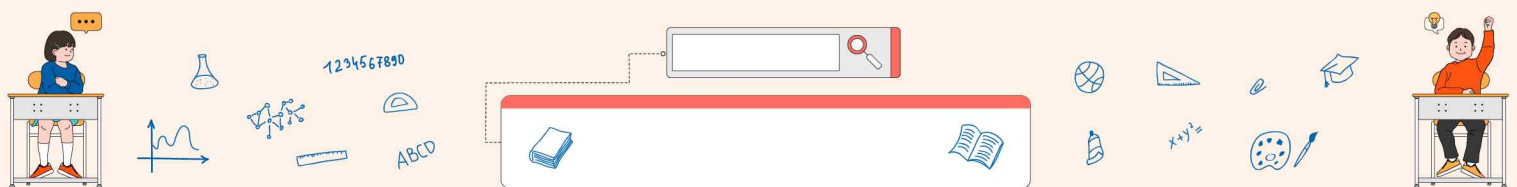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II类型是与缓解大学学费负担的自救努力联动支付的。通过大学自救减轻学费负担的金额达7500亿韩元，要求大学减免5%的学费并扩大校内奖学金。实际上，2012年95%的大学都参与国家奖学金II类项目。

而且，到2022年为止，韩国大学的学费水平一直处于冻结状态。因为韩国大学的财政相当依赖学费收入，所以长期冻结学费加剧了大学的财政困难。

以上总结了韩国高等教育政策的主要话题-大学结构调整和学费限制。大学结构调整政策是为了应对学龄人口减少而实施的。

最终，随着人口的减少，重点是减少大学的定员人员和规模，通过实施大学评价和等级制等，通过合并进行结构调整或根据评估结果进行差别化，减少定员人员。另外，为了支援地方大学，那些条件相对良好、评价较好的大学也被要求减少定员人员。

随着2011年国家奖学金的扩大，半价学费政策正式实施。这项将大学生学费负担减轻一半的政策不仅冻结了大学的学费，还冻结了奖学金支持。尽管物价上涨，但大学学费冻结了10多年，对学费收入依赖较大的韩国大学的财政困难正在加剧。下节课我们来看看研究生教育。谢谢。



5-5**研究生教育**

学员们，大家好。上节课整理了韩国高等教育政策的主要话题-大学结构调整和学费限制。这节课我们来看看韩国的研究生教育。

研究生院是4年制大学毕业后升学，培养硕士和博士学位的教育机构。让我们展望一下在韩国高等教育中研究生院是如何扩大的，在韩国经济的发展中具有什么样的意义。

解放后制定的学制规定，普通大学可以成立研究生院。1952年教育法执行令规定学位的种类和学习年限等。这样以学术研究为重点运营的研究生院就是普通研究生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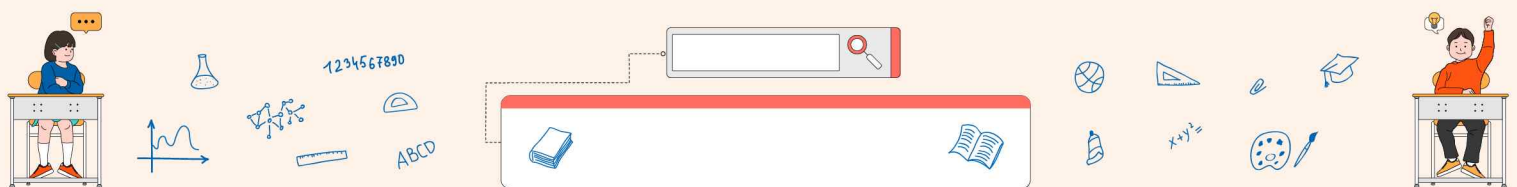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从1950年代末开始，新成立了特殊研究生院。1959年在首尔大学成立了行政研究生院和保健研究生院，是韩国第一个特殊研究生院。特殊研究生院是为职业人士或普通成年人实施继续教育的机构，目标是为了培养高级专业人才。

目前由教育研究生院、行政研究生院、保健研究生院、社会福利研究生院等多种形式运营。特殊研究生院主要以硕士课程运营，并授予特殊学位。

专业研究生院为培养高级专业人才于1998年引进。有医学专业研究生院、法学专业研究生院、经营专业研究生院、神学专业研究生院、国际研究生院等。专业研究生院根据学校和课程授予专业学位，也像普通研究生院一样授予学术学位。

另外，根据1997年大学成立准则主义，可以只运营成立研究生院的大学。此后新出现的只运营研究生课程的高等教育机构-研究生院大学。以2021年为准，韩国成立并运营着45所研究生院大学。

1962年在韩国成立的研究生院只有25个。研究生院的成立不断增加，1979年达到了100个。此后，在2003年超过1000所，2021年共有1174所研究生院正在运营。研究生院的数量随着各种专业研究生院和特殊研究生院的开设而大幅增加。1995年至1998年间新增了300多所研究生院，仅2000年一年就有153所研究生院成立。



研究生院数量增加的核心原因是研究生院对学术和专业教育的需求正在增加。随着经济增长和技术进步高度化，对受过研究生教育的专业人才的需求增加也产生了一定的影响。特殊研究生院还执行了特定领域的在职人员交流和建立网络的功能。

在对名牌大学的偏好依然存在的情况下，研究生课程比本科相对不难入学，这也为研究生教育需求的增加做出了贡献。各大学也与本科课程不同，研究生院对学费的限制相对较少，因此积极新设并运营研究生院的诱因很大。

获得硕士和博士学位的人数也大幅增加。1980年获得硕士和博士学位的人数为5552人。到2021年将增至96450人。

普通研究生院的硕士和博士培养也在不断增加，1990年代中期以后，专业研究生院和特殊研究生院剧增，大幅增加了培养硕士学位的效果尤其值得关注。最近每年有80000多人获得硕士学位，16000多人获得博士学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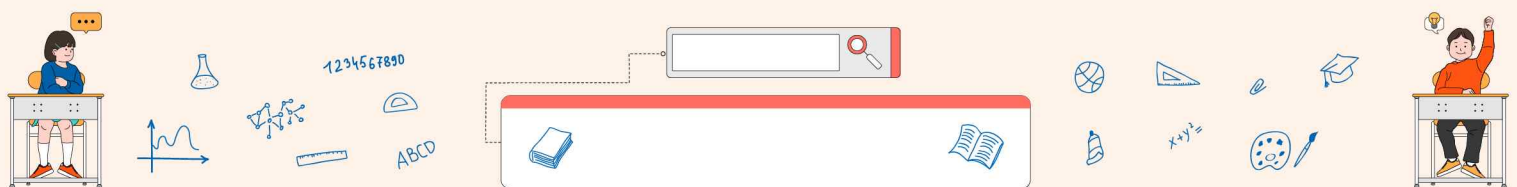
早期获得研究生学位的人大部分为男性。直到2005年，硕士学位获得者中只有43%是女性，博士学位获得者中只有26%是女性。但是，在获得学位的人中，女性的比率一直在上升。以2021年为准，硕士学位获得者中女性比率为54%，高于男性。获得博士学位的人中女性比例在最近也接近了40%。

以上，整理了韩国的研究生教育。韩国的研究生院分为学术研究的普通研究生院、以上班族为主要对象的特殊研究生院、培养高级专业人才的专业研究生院。1990年代中期以后，特殊研究生院和专业研究生院大幅增加，主导了研究生教育的膨胀。完成研究生教育的女性人数也有所增加，而且在最近获得硕士学位的女性多于男性。

《韩国经济与韩国教育》的第五讲就讲到这里。在此次讲座中，我们了解了韩国的高等教育。我们回顾了韩国高等教育从殖民地时期到现在形成的过程和扩散到全世界高等教育升学率最高的过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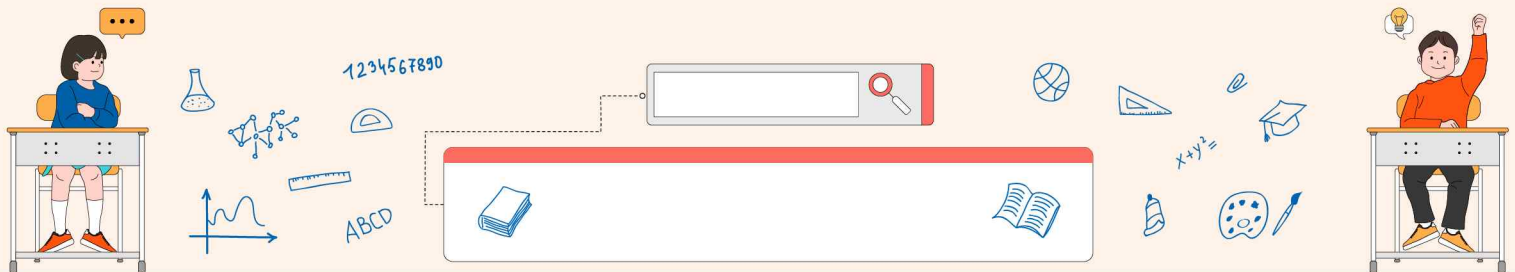
还对成为高等教育升学背景的就业率和工资溢价进行了研究。还回顾了最近高等教育政策的热点-大学结构调整和半价学费政策和研究生教育的扩大过程。在接下来的第六讲中，我们将考察韩国的教师。谢谢。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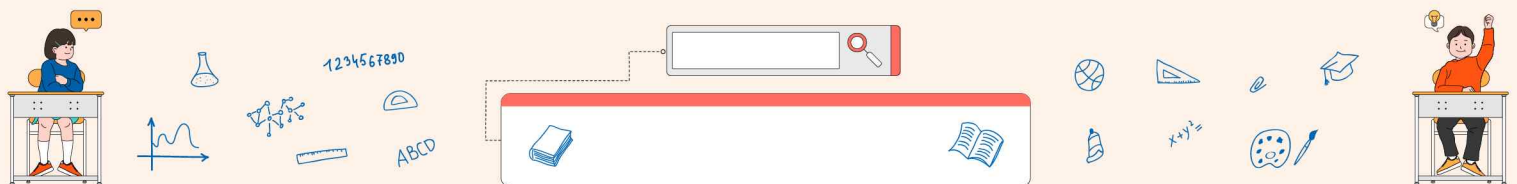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01 다음 중 한국 고등교육의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식민지기의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은 1924년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이었다.
- ②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까지 많은 대학들이 새로 설립되었고, 학생 수도 크게 증가했다.
- ③ 1950년대까지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대학은 2년제 또는 4년제였고,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학교는 고등교육이 아닌 중등교육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 ④ 한국전쟁 시기부터 종전 직후까지 전국에 주요 국립대학교들과 많은 사립대학이 설립되었다.

정답 ①

해설 경성제국대학은 식민지기의 유일한 대학이었다. 대학 이외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여러 전문학교가 있었다. 1943년까지 20개의 전문학교가 운영되었다. 국공립 전문학교도, 사립 전문학교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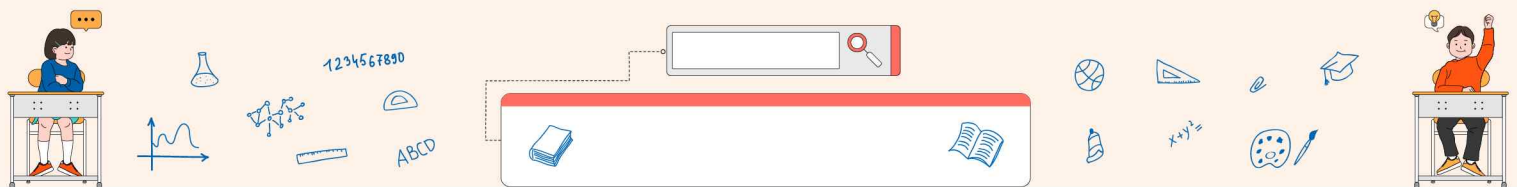
02 다음 중 1980년의 7·30 교육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입학전형에서 대학별 본고사를 금지하고 내신 비중을 늘렸다.
- ② 재수생의 과외와 학원교습을 금지시켰다.
- ③ 졸업정원의 130%를 선발하여 나중에 정원 만큼만 졸업시키는 졸업정원제가 도입되었다.
- ④ 대학 입학정원이 확대되었고, 교육대학이 4년제 대학교로 승격되었다.

정답 ②

해설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초·중고 재학생의 과외교습과 학원교습을 금지시켰지만, 재수생의 학원교습은 금지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후 과외 및 학원교습이 다시 허용될 때까지 재수생 학원만이 남았는데, 종로학원, 대성학원 등이 유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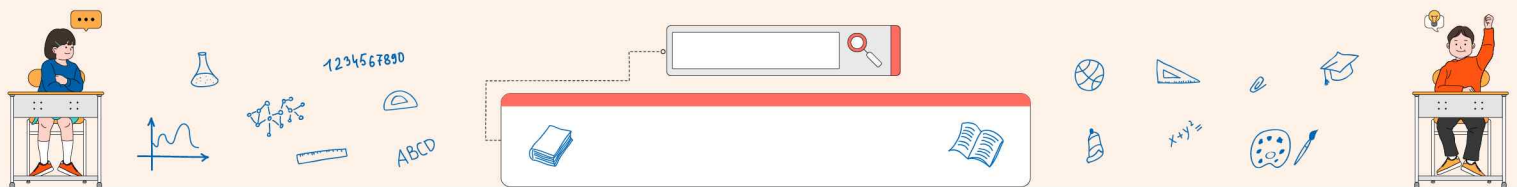


03 다음 중 1995년 5·31 교육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점은행제 도입, 원격교육 지원, 편입학 기회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
- ②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대학설립·정원·학사를 자율화하고 대신 평가와 재정지원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 ③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사립대학의 신설을 억제하는 대신 국공립 교육기관 중심으로의 재편이 이루어졌다.
- ④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 입시에 활용하였다.

정답 ③

해설 5·31 교육개혁에서는 학교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다양화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제시되었다. 이 결과 이후 사립대학의 설립이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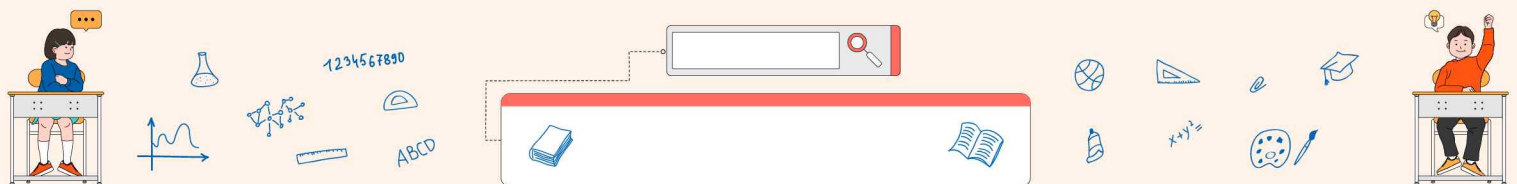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04 다음 중 한국 고등교육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0분

- ① 대학 전임교원 중 여성 비율이 낮은 편이고, 특히 국공립대학에서 가장 낮다.
- ② 고등학교 졸업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1980년 이전까지는 30%에 미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70%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 ③ 대학생 중 여성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등교육 진학결정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 ④ 한국 고등교육은 기관이나 학생 수 등에서 사립대학의 비중이 크다.

정답 ③

해설 대학생 중 여성 비율은 2021년 43% 수준인데, 이는 진학에 있어 성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군복무에 따른 휴학과 복학 등으로 인해 남학생들의 재학기간이 여학생들보다 더 길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각 연도별 대학 입학생의 성비는 최근 거의 50%에 가깝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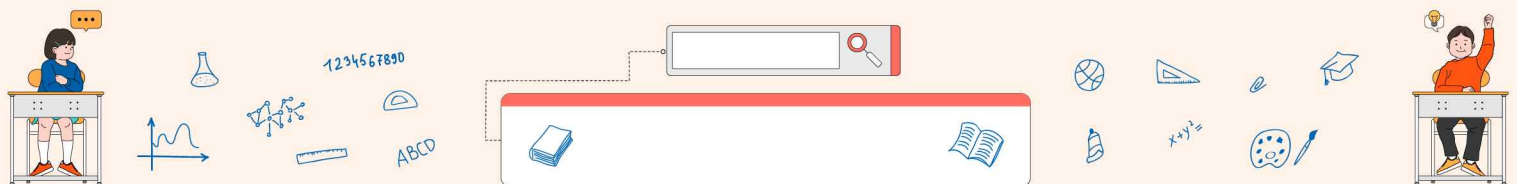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05 다음 중 한국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분

- ①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② 한계대학들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을 남기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 ③ 정부에서 대학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고,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 ④ 수도권과 지방,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정원감축 비율을 안배하고 있다.

정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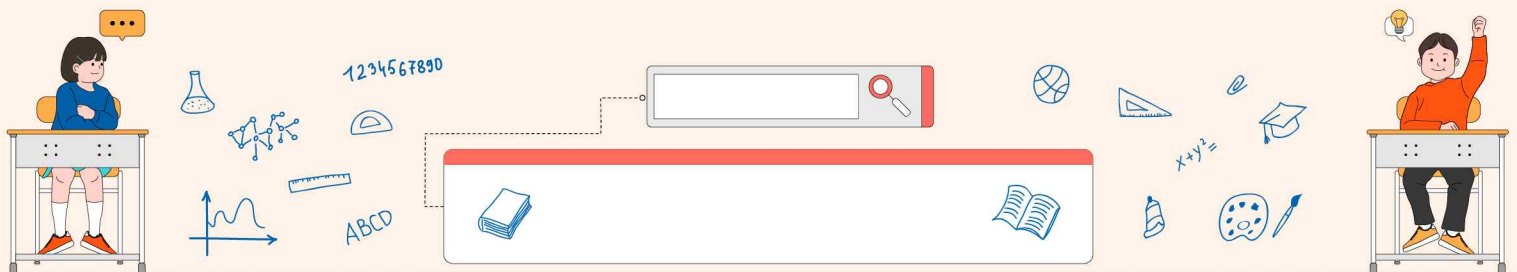
해설 한국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최근까지는 한계대학을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들의 정원을 모두 줄이면서 한계대학의 생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계대학의 도태를 막기 위해 우수 대학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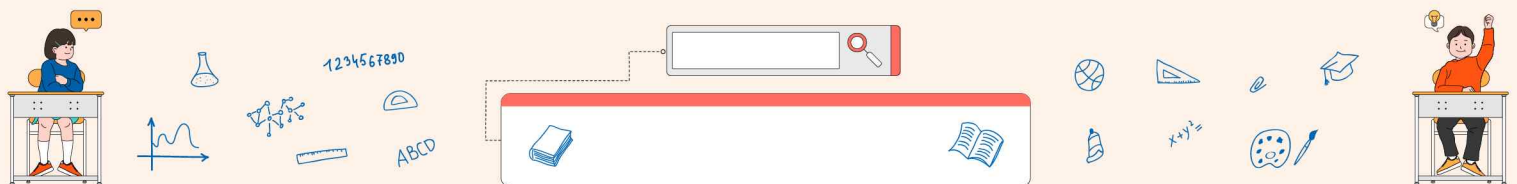
-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한 장 정도 작성하면 됩니다.
- 다른 수강생이 남긴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답변으로 남겨도 토론 점수가 인정됩니다.

주제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 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 청년들이 대학교육을 이수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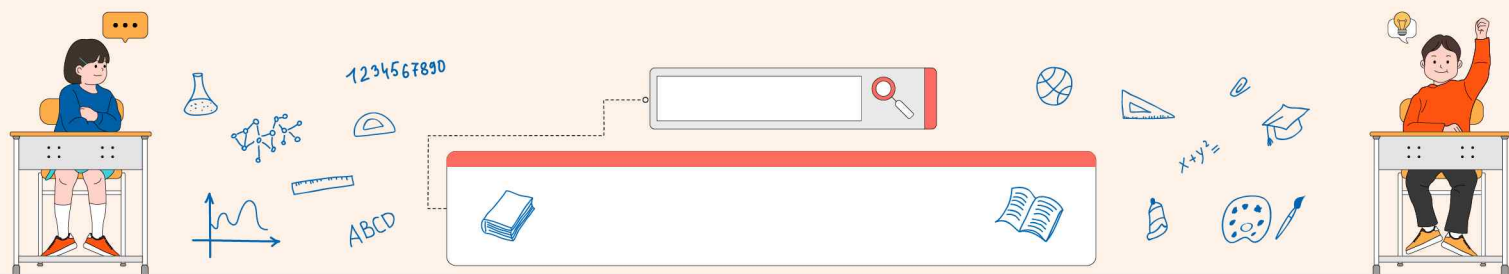
한국의 고등교육 진학 또는 이수율은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고등교육의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해 보면 설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고등교육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인은 교육투자수익률이다. 대졸자 임금수준, 고졸자 임금수준, 대학 학비 등이 영향을 미치고, 각급학교 졸업 후의 취업률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졸과 고졸 학력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기술진보와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보통 학력간 임금격차가 확대될 때 상급 학교로의 진학률도 증가한다. 공급 측면의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진학이 많은 국가들은 폭넓은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사립 대학의 설립 비중이 높은 편이다. 고등교육 진학이 적은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을 국공립 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통 고등교육은 역사적으로 소수의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도서

-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1998. 교육50년사.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1994.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 - 개화기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1997.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 - 일제시대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1998.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I) - 해방이후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영상

- https://youtu.be/a403L_jZFoE